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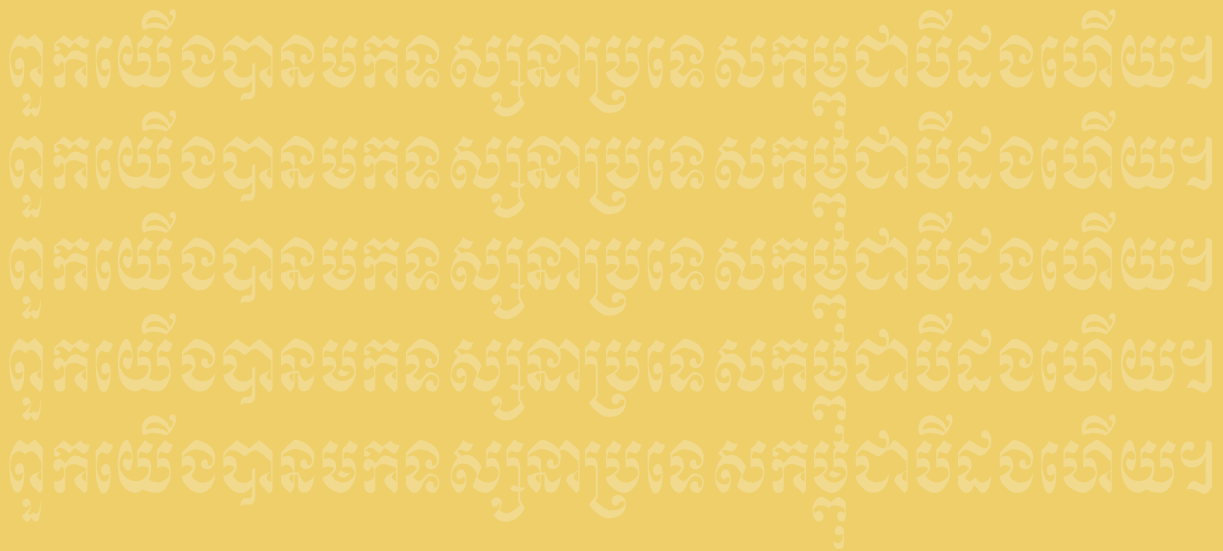
크마에 문법을 이해시켜 작문과 독해를 자유롭게!

크메르 작문

Khmer writing

김동구 지음

김 동 구 지음



목 차

01강	문법의 기초	3
02강	문장과 동사	9
03강	형용사	27
04강	부사	39
05강	접속사	55
06강	명사와 대명사	59
07강	문장	61
08강	전치사	67
09강	중요한 크마에 문법 단어	71
10강	크마에 문법을 바탕으로 크마에 작문 연습	85

Khmer
writing

1강

문법의 기초

문법의 정의
문법의 기초
크마에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들
크마에 문법 특징

1강 문법의 기초

이 책은 한국어와 영어 문법을 비교 대조함을 통해 독자들에게 크마에 문법을 이해시켜 작문과 독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키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법책 아마 영어문법책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러한 책들은 문법책이면서도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면들 예를 들면 품사, 문장성분, 음절, 단어, 어휘, 구, 절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리 없이 오로지 그 언어와 관련된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만 집중된 면이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문법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1. 문법의 정의

1) 문법은 언어의 설계도이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언어의 집을 지어 갈 때 가장 중요한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법이다. 문법이 언어의 설계도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런 집들은 고작해야 여염집에 불과한 수준이 될 뿐이다. 설계도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든, 아무리 큰 규모든 상관없이 어렵지 않게 지어낼 수 있다. 언어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글과 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그렇게 표현되고 쓰여 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게 된다. 비록 모국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중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외국어를 사용하고 배우게 될 때는 문법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 문법은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어느 특정 언어와 관련된 규칙들을 그 언어의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문법은 언어와 관련된 규칙이라는 면에만 얽매이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설계도라는 의미보다 옳고 그름에 치중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그렇게 좋은 정의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나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는 문법교육의 목표이며 한계이기도 하다.

3) 문법은 그 언어의 문장 구조와 구성방법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우리가 길을 가거나 항해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 가운데 하나이다. 한 나라의 언어를 정복하기 위한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그 언어의 문법에 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우리를 그 언어가 가진 문장구조와 구성방법을 보게 해 준다. 문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한 언어로 쓰여진 문장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지식을 얻었다는 것 보다 그 언어의 문장구조와 구성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을 획득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설명** - 왜? 한국어는 모음이 하나이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든 모음이 들어가야지만 소리로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리 값이 없는 모음 ‘ㅡ’를 붙여 소리를 표기하기 때문에 영어와는 음절의 수의 차이를 보인다.

크마에
 ᄀᄀᄀ- ᄀᄀ-ᄀ (2음절) 한국으로 표기하면 - 살-라(2음절)

● **설명** - 한국어든 크마에든 각각 모음이 두 개이므로 두 음절로 이해된다.

예) 크마에 - ㅋ마-에(2음절) 한국어로 표기하면 - 크-마-에(3음절)

● **설명** -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크마에는 모음 없이 자음이 한 꺼 번 에 두 개가 연거푸 쓰이는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은 크마에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처럼 모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리로 인정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암시는 한국어 발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음이 오면 반드시 모음이 와야 발음이 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앞의 예에서 보듯이 ㅋ마-에(2음절)로 발음하지 않고 크-마-에(3음절)로 발음을 하게 될 것임을 추측하게 해 준다. 한국인이 크마에를 할 때 현지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음절의 구성법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ㄷ. 음절의 적용

음절을 이해하는 것은 단어 암기에 도움을 준다. 한국어의 음절 하나가 영어의 음절 하나와 어떻게 대치가 되는 지를 살피면서 암기를 하게 되면 단어를 읽히는 데 연습장이 썩 까맣게 될 때까지 손가락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크마에는 음절의 적용이 영어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로 보자면 모음이 두 개가 분명해서 두 음절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크마에는 두 개의 모음도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을 해서 한 음절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행커치프 - hang ker chief(행-커-칩)	행-커-치-프 (4음절)
살라-ᄀᄀᄀ (살-라) (2음절)	살-라(2음절)
시어퍼우-ᄀᄀᄀᄀᄀ (시어 - 퍼우)(2음절)	시-어-퍼-우(4음절)
쁘레아예수 -ᄀᄀᄀ레아-예-수(3음절)	쁘-레-아-예-수(5음절)

2) 단어

ㄱ. 의미 - 음절로 이루어진 기호(형태소)들의 나열이 의미를 표현하는 것

ㄴ. 단어의 예 - 나, 너, 사랑하다 등

나-는 너-를 사랑한다(사랑하다) I love you **크놈 쓸로란 네악**

ㄷ. 단어가 아닌 예

한국어 - 독, 짝, 째, 위알 등

영어 - axcdf, fghjre, eertdcwe, erty

● **설명** -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음절로 이루어진 기호들의 나열이 반드시 의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각각 한국어와 영어에서 단어로 취급 받지 못하는 의미 없는 소리들의 나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음절로 이루어진 기호들의 나열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으면 단어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3) 품사

A. 의미 - 품사는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품사는 흔히 단어 자체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문장성분과 품사에 대한 이해에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단어가 그 성질로 볼 때는 명사로 불려진다면, 문장 안에서는 명사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성분을 구성하는 요소인 주어 보어 혹은 목적어로 불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품사를 단어 자체의 성질로 정의하기 보다 문장안과 문장 밖을 기준으로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 즉 사전 속 단어들의 역할과 성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품사를 정의하고자 한다.

품사 -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 문장성분 - 문장 안에서의 품사의 역할

B. 품사의 종류 - 각 나라의 언어마다 다르다. 칭하는 이름도 다를 수 있다.

ㄱ. 영어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명사, to-부정사, 분사

ㄴ. 한국어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 관형사

ㄷ. 크마에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품사는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품사의 내용들을 알고 읽히는 것보다 왜 이 품사들이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크마에서 발견되고 설명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영어의 to-부정사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도 중요하지만 왜 to-부정사가 한국어 품사에는 없는 데 영어에는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이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C. 품사의 이해의 중요성 - 단어마다 역할이 다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크마에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들

1)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자면 품사와 문장성분의 뜻 즉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기본으로 전치사 접속사의 개념과 주어 동사(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개념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단어와 음절 그리고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되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본다.

2) 단어 가운데 동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어휘들을 익힌다. 크마에 동사는 영어와 같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동사가 익숙하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고 문법을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글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크마에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크마에 언어에 충분히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일이다. 문법을 공부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영어와 한국에 문법에만 해당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크마에 문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며 쉽기 때문이다. 오히려 크마에는 이 간단한 문법을 익힌 자에게는 고생하지 않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이루게 해 줄 것이다.

4. 크마에 문법 특징

- 1) 크마에 품사는 영어와 한국어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다.
- 2)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 영어나 한국어와 달리 동사의 활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3) 문법을 설계도로 삼아 문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 4) 다른 언어보다 쉽게 빨리 문법을 배울 수 있다.
- 5) 크마에는 문장구조보다는 어휘 싸움이다.
- 6) 크마에 문법은 통사론(syntax)보다 형태론에 더 많은 문법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각 언어의 문법내용들이 우리가 쓰는 언어인 한국어와 어떻게 문법내용들끼리 대치가 되는 지를 살피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한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국문법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의사소통을 하고 문장을 써는 데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의 문법 특히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을 위한 문법만을 공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법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법공부를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것으로 여기게끔 할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을 통해 크마에 문법을 한국어와 영어 문법을 비교대조식으로 정리하고 설명해 보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법을 공부하는 동기를 새롭게 할 것이고 한 언어의 문법이 다른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크마에 문법에 대한 이론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Khmer writing

2강

문장과 동사

문장(러봐, sentence)
크마에 동사

2강 문장과 동사

1. 문장(문장, sentence)의 구성

(1) 의미 -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의사전달이 가능한 상태의 단어들의 나열

(2) 문장성분

A. 의미 - 품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문장성분은 각 단어가 서술어(동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B. 문장성분의 분류 - 문장 성분은 크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동사), 수식어가 있다. 크마에 문장의 문장 성분은 이 다섯 가지가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국어는 이 다섯 가지 외에 독립어가 하나 더 있다. 영어문법에서도 문장 성분은 다섯 가지가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C. 문장 성분의 각 요소

a. 주어 : 설명(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성분

민서가 밥을 먹는다

b. 서술어 : 문장의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민서가 밥을 먹는다

c. 타동사로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분.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민서가 밥을 먹는다

d. 보어 : '되다'와 '아니다' 앞에서 주어 이외에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민서는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이 될 거다

e. 수식어 : 형용사와 부사와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뜻한다.

민서는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이 될 거다

민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D. 문장성분의 활용

주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한국어), 동명사(영어), to-부정사(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한국어), 동명사(영어), to-부정사(영어), 형용사(영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한국어), 동명사(영어), to-부정사(영어)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형용사, 부사(한국어, 영어, 크마에)

(3) 문장의 형식 (문장의 다섯 가지 구조-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제1형식 주어 + 서술어(동사-영어)

제2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주격보어) + 주격보어(한국어-서술어)

제3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 목적어) + 목적어(한국어-서술어)

제4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간목) + 간목(한국어-직목) + 직목(한국어-서술어)

제5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주격) + 목적어(한국어-목적보어) + 목적격보어(한국어-서술어)

● **설명** - 영어와 크마에는 어순이 거의 동일하다.

● **설명**-보어는 주격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는 데 보어는 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 **설명** - 다섯 번째 형식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한 것으로 보면 된다.

영어 문법에서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짓는 요인이 동사다. 그러므로 영어를 잘 하려면 동사를 찾는 데 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구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크마에에도 적용된다. 한국어는 문장의 5형식이 조사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한국어를 잘 하려면 조사에 능해야 한다. 조사를 중심으로 하면 한국어는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조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한국어 문장의 질을 결정한다.

영어와 크마에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 동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며 문장을 빨리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4) 크마에 문장의 종류

A. 문장의 형태에 따른 분류

a. 평서문(리바반제악)- 긍정문, 부정문(먼(ᄃᆞᆫ), 엇(ᄃᆞᆫ), 뵤(ᄃᆞᆫ))

b. 의문문(리바썸누어) - 따으(ᄃᆞᆫ) -----떼(ᄃᆞᆫ)?

c. 명령문(리바반찌어) - 동사+!, 솜(ᄃᆞᆫ)+동사 +!, 쏜(ᄃᆞᆫ)+동사 +!, 솜(ᄃᆞᆫ)+쏜(ᄃᆞᆫ)+동사 +!

d. 감탄문(리바올띠언) - 꾸어아오이(ᄃᆞᆫ) + (동사, 형용사, 부사) + 나(ᄃᆞᆫ) !

B. 문장의 상태에 따른 분류

a. 능동태(리봐깁)

b. 수동태(리봐깁) - 주어 + **뜨리으**(**trif**) + (능동태 문장의 주어) + **반**(**ms**) + 동사

C. 문장의 길이에 따른 분류

a. 단문(리봐뜰) : 주어와 술어가 하나 뿐인 문장

b. 복문(리봐끄롱) : 단문과 단문이 등위접속사를 통해 이루어진 문장

c. 중문(리봐퍼섬) :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

d. 혼합문

▷ 문장은 영어로 sentence, 절은 clause로 표현되고 크마에에서는 문장은 리봐, 절은 클리어로 불리워진다.

크마에 문장에 대해서는 뒤 후반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다.

2. 크마에 동사

(1) 크마에 동사의 특징

A. 크마에 동사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동작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동사의 위치는 주로 주어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이는 영어와 중국어의 동사 위치와 동일하며, 크마에 동사는 동사의 첨어(complement)를 가진다. 한국어와 영어가 동사의 첨어로 보어와 목적어를 가지듯이 크마에 동사 역시 첨어로 목적어(کمربون)와 보어(کمرب)를 가진다.

B. 크마에 동사는 원형이니 기본형이라는 말이 없다. 한국어 문법은 동사의 기본형이 있고, 영어는 동사의 원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장 밖의 동사의 형태가 문장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쉽게 말하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동사의 형태가 기본형이고 원형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문장 안에서 동사는 수많은 변화를 한다. 따라서 문장 안에서의 동사와 문장 밖(사전 안)에서의 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원형과 기본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마에는 동사의 기본형이니 원형이니 하는 말이 없다. 이 말은 사전의 동사나 문장 안에서의 동사나 형태나 역할이 같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크마에 문법에서 다른 언어들의 문법(한국어, 영어)과 달리 가장 단순하고 변화가 없는 것이 크마에 동사이다. 동사의 단순함으로 인해 크마에 문법에는 다른 언어들 특히 영어에 적용되는 수많은 문법적 사항들(to-부정사, 동명사, 분사)과

내용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크마에는 영어와 한국어와 달리 어미라는 것이 없다. 동사의 어미변화를 통해 시제와 태와 법이 결정되는 영어와 시제가 결정되는 한국어와 달리 크마에는 동사의 어미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 언어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법내용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크마에 동사의 시제

한국어) 가다(원형)-간다(현재형)-가고 있다(진행형)-갔다(과거형)-갈 것이다(미래형)

영어 go(원형) - go, goes(현재형)-going(진행형)-went(과거형)-have(had, will have)

gone (완료형)-will go(미래형)

크마에) **떠**으(**ㄱ**)(위형) - **떠**으(**ㄱ**)(현재형)

-검뽕떠으(កំពង់ទ្រ)(진행형)

-반떠으(𐏃𐏃𐏃)(과거형)

-**능떠으**(**នឹងទ**)(미래형)

나는 학교에 간다.(간다는 가다 동사의 현재형)

크눔 떠으 쌀라(떠으는 현재형 동사) ခွံ့ၵေၤလၢၤ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갔다는 가다 동사의 과거형)

므셀멘 크눔 반 떠으 살라(반 떠우는 떠우 동사의 과거형)

មុនលមិត្តខ្ញុំបានទៅសាលា។

갈배르셀멘 크눔 반 떠으 쌀라

កាលពីម្សិលមិញខ្ញុំបានទៅសាលា។

『갈배(갈뵈)』는 과거시간임을 나타낼 때 문어체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다.

구어체에서는 주로 ‘갈뻘(ກາລັດ)’¹⁾는 생략하고 ‘문(ຜູ້)’²⁾으로만 표현해서 쓴다.

Ex) 이틀전 : 𐄀 𐄁 𐄂 𐄃 𐄄 𐄅 𐄆 𐄇 𐄈 𐄉 𐄊 𐄋 𐄌 𐄍 𐄎 𐄏 𐄐 𐄑 𐄒 𐄓 𐄔 𐄕 𐄖 𐄗 𐄘 𐄙 𐄚 𐄛 𐄜 𐄝 𐄞 𐄟 𐄠 𐄡 𐄢 𐄣 𐄤 𐄥 𐄦 𐄧 𐄨 𐄩 𐄪 𐄫 𐄬 𐄭 𐄮 𐄯 𐄰 𐄱 𐄲 𐄳 𐄴 𐄵 𐄶 𐄷 𐄸 𐄹 𐄺 𐄻 𐄼 𐄽 𐄾 𐄿 𐅀 𐅁 𐅂 𐅃 𐅄 𐅅 𐅆 𐅇 𐅈 𐅉 𐅊 𐅋 𐅌 𐅍 𐅎 𐅏 𐅐 𐅑 𐅒 𐅓 𐅔 𐅕 𐅖 𐅗 𐅘 𐅙 𐅚 𐅛 𐅜 𐅝 𐅞 𐅟 𐅠 𐅡 𐅢 𐅣 𐅤 𐅥 𐅦 𐅧 𐅨 𐅩 𐅪 𐅫 𐅬 𐅭 𐅮 𐅯 𐅰 𐅱 𐅲 𐅳 𐅴 𐅵 𐅶 𐅷 𐅸 𐅹 𐅺 𐅻 𐅼 𐅽 𐅾 𐅿 𐆀 𐆁 𐆂 𐆃 𐆄 𐆅 𐆆 𐆇 𐆈 𐆉 𐆊 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𐊀 𐊁 𐊂 𐊃 𐊄 𐊅 𐊆 𐊇 𐊈 𐊉 𐊊 𐊋 𐊌 𐊍 𐊎 𐊏 𐊐 𐊑 𐊒 𐊓 𐊔 𐊕 𐊖 𐊗 𐊘 𐊙 𐊚 𐊛 𐊜 𐊝 𐊞 𐊟 𐊠 𐊡 𐊢 𐊣 𐊤 𐊥 𐊦 𐊧 𐊨 𐊩 𐊪 𐊫 𐊬 𐊭 𐊮 𐊯 𐊰 𐊱 𐊲 𐊳 𐊴 𐊵 𐊶 𐊷 𐊸 𐊹 𐊺 𐊻 𐊼 𐊽 𐊾 𐊿 𐋀 𐋁 𐋂 𐋃 𐋄 𐋅 𐋆 𐋇 𐋈 𐋉 𐋊 𐋋 𐋌 𐋍 𐋎 𐋏 𐋐 𐋑 𐋒 𐋓 𐋔 𐋕 𐋖 𐋗 𐋘 𐋙 𐋚 𐋛 𐋜 𐋝 𐋞 𐋟 𐋠 𐋡 𐋢 𐋣 𐋤 𐋥 𐋦 𐋧 𐋨 𐋩 𐋪 𐋫 𐋬 𐋭 𐋮 𐋯 𐋰 𐋱 𐋲 𐋳 𐋴 𐋵 𐋶 𐋷 𐋸 𐋹 𐋺 𐋻 𐋼 𐋽 𐋾 𐋿 𐌀 𐌁 𐌂 𐌃 𐌄 𐌅 𐌆 𐌇 𐌈 𐌉 𐌊 𐌋 𐌌 𐌍 𐌎 𐌏 𐌐 𐌑 𐌒 𐌓 𐌔 𐌕 𐌖 𐌗 𐌘 𐌙 𐌚 𐌛 𐌜 𐌝 𐌞 𐌟 𐌠 𐌡 𐌢 𐌣 𐌤 𐌥 𐌦 𐌧 𐌨 𐌩 𐌪 𐌫 𐌬 𐌭 𐌮 𐌯 𐌰 𐌱 𐌲 𐌳 𐌴 𐌵 𐌶 𐌷 𐌸 𐌹 𐌺 𐌻 𐌼 𐌽 𐌾 𐌿 𐍀 𐍁 𐍂 𐍃 𐍄 𐍅 𐍆 𐍇 𐍈 𐍉 𐍊 𐍋 𐍌 𐍍 𐍎 𐍏 𐍐 𐍑 𐍒 𐍓 𐍔 𐍕 𐍖 𐍗 𐍘 𐍙 𐍚 𐍛 𐍜 𐍝 𐍞 𐍟 𐍠 𐍡 𐍢 𐍣 𐍤 𐍥 𐍦 𐍧 𐍨 𐍩 𐍪 𐍫 𐍬 𐍭 𐍮 𐍯 𐍰 𐍱 𐍲 𐍳 𐍴 𐍵 𐍶 𐍷 𐍸 𐍹 𐍺 𐍻 𐍼 𐍽 𐍾 𐍿 𐎀 𐎁 𐎂 𐎃 𐎄 𐎅 𐎆 𐎇 𐎈 𐎉 𐎊 𐎋 𐎌 𐎍 𐎎 𐎏 𐎐 𐎑 𐎒 𐎓 𐎔 𐎕 𐎖 𐎗 𐎘 𐎙 𐎚 𐎛 𐎜 𐎝 𐎞 𐎟 𐎠 𐎡 𐎢 𐎣 𐎤 𐎥 𐎦 𐎧 𐎨 𐎩 𐎪 𐎫 𐎬 𐎭 𐎮 𐎯 𐎰 𐎱 𐎲 𐎳 𐎴 𐎵 𐎶 𐎷 𐎸 𐎹 𐎺 𐎻 𐎼 𐎽 𐎾 𐎿 𐏀 𐏁 𐏂 𐏃 𐏄 𐏅 𐏆 𐏇 𐏈 𐏉 𐏊 𐏋 𐏌 𐏍 𐏎 𐏏 𐏐 𐏑 𐏒 𐏓 𐏔 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𐐀 𐐁 𐐂 𐐃 𐐄 𐐅 𐐆 𐐇 𐐈 𐐉 𐐊 𐐋 𐐌 𐐍 𐐎 𐐏 𐐐 𐐑 𐐒 𐐓 𐐔 𐐕 𐐖 𐐗 𐐘 𐐙 𐐚 𐐛 𐐜 𐐝 𐐞 𐐟 𐐠 𐐡 𐐢 𐐣 𐐤 𐐥 𐐦 𐐧 𐐨 𐐩 𐐪 𐐫 𐐬 𐐭 𐐮 𐐯 𐐰 𐐱

며칠전 : **갈매** 폰만통아이문(កាលពី ប៉ុន្មានថ្ងៃមុន) = **폰만통**아이문(ប៉ុន្មានថ្ងៃមុន)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갈 것이다'는 '가다'의 미래형)

크롬 능 떠으 살라 너으 통아이 쓰엑(능 떠우는 떠우 동사의 미래형)

ខ្ញុំនឹងទៅសាលានៅថ្ងៃស្អែក។

☞ **너으(irst)**는 장소 앞에도 붙이지만, 시간 앞에도 붙여서 사용한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읽고 있다’는 ‘읽다’의 현재진행형)
아일리어 니h 크눔 껌뽕 안 씨어퍼으(껌뽕 안은 ‘안’ 동사의 현재진행형)

ឥលូវនេះខ្ញុំកំពុងអានសៀវភៅ ។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크눔 껌뽕 안 쁘레아꿈뻔

ខ្ញុំកំពុងអានព្រះគម្ពីរ ។

● **설명** - 위에서 살펴본 대로 크마에 동사는 어미와 원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영어와 한국어 처럼 동사 자체의 변화는 없다. 크마에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조동사와 같은 다른 단어의 도움을 받아 시제를 표현한다. 이 때 반(បាន), 능(នឹង), 껌뽕(កំពុង) 등이 무슨 품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밥을 먹었다.
뿌억여응 (반) 남 바이 (r)루엇 하으이

ពួកយើង(បាន)ញ៉ំបាយរួចហើយ។

뿌억여응 남 바이 하으이 하으이

ពួកយើងញ៉ំបាយហើយៗ។

우리는 이미 캄보디아를 세 번 방문했다.
뿌억여응 반 목 레엥(뚜스나) 쁘레떼깜뿌지어 바이딩 하으이

ពួកយើងបានមកលេង (ទស្សនា)ប្រទេសកម្ពុជាបីដងហើយ ។

(이 문장에서 ‘방문하다’는 ‘뚜스나(ទស្សនា)’보다 ‘목레엥(លេង)’라는 단어를 쓰면 더 자연스럽다.)
☞ ‘우리(저희)’는 뿌억여응(ពួកយើង), 영크눔(យើងខ្ញុំ), 영떼앙오크니어(យើងទាំងអស់គ្នា)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뿌(억)영(ពួកយើង)을 많이 사용한다

나는 성경을 벌써 3번이나 읽었다.
크눔 반안 쁘레아꿈뻔 짹 바이딩 하으이(루잇 하으이, 루잇 로알 하으이)

ខ្ញុំបានអានព្រះគម្ពីរ៣បើដងហើយ។(រួចហើយ, រួចរាល់ហើយ)

● **설명** -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크마에 문장 맨 끝에 ‘하으이(ហើយ)’가 붙으면 완료시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 하다.

(3) ‘찌어(ជា)’와 ‘끼찌어(គឺជា)’ 동사

A. 크마에 동사 가운데 영어의 ‘be’동사와 한국어의 ‘~이다’ 동사와 같은 의미와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다. 이 동사는 ‘찌어(ជា)’, 혹은 ‘끼찌어(គឺជា)’로 표현된다. 그러나 크마에 동사 ‘찌어(ជា)’는 한국어의 ‘~이다’ 동사와 영어의 ‘be’ 동사 보다 훨씬 넓은 활용 범위를 가진다.

보파는 학생이다.

보파 ក្រិច្ចិ ឆ្មើ

បុព្វគឺជាសិស្ស។

그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시다.

ក្រាវ ឆ្មើ ក្រុក្រុក្រើល នើ ក្រុក្រុក្រើល ក្រុក្រើ ក្រុក្រើ

គាត់ជាគ្រូគង្វាលនៃក្រុមជំនុំរបស់ខ្ញុំ។

ក្រាវ ឆ្មើ ក្រុ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

គាត់ជាគ្រូគង្វាលក្រុមជំនុំខ្ញុំ។

B. 병이 나았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크마에 동사 ‘찌어(ជា)’가 쓰인다 이 때는 같은 의미로 ‘끼찌어(គឺជា)’로 바꿔 쓸 수 없다. 이 때 찌어는 독립된 형태와 의미의 동사로서 기능한다.

그는 감기가 나왔다.

ក្រាវ ឆ្មើ ប្រៃ(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គាត់ជាពី(ជំងឺ) ផ្តាសាយហើយ។

그의 아픈 다리가 어제 나왔다.

ក្រុក្រើល ឆ្មើ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លពីម្សិញមិញជើងគាត់បានជាហើយ។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ក្រុក្រើល

ជើងឈឺរបស់គាត់បានជាហើយកាលពីម្សិញមិញ។

꼬알 반 찌어 다오이 (r)르티엄나잇 (r)러버h 뽀레아h 예수

គាត់បានដោយវិទ្យាអំណាចរបស់ព្រះយេស៊ូវ ។

달린은 예쁘다.

달린 싸알

ជាលីនស្អាត។

달린의 남자 친구는 잘 생겼다.

송사(r로버ㅎ)달린 송하 나

សង្ឃា(របស់)ជាលីនសង្ហាណាស់។

우리 예배당은 정말 아름답다.

our church is beautiful. (is+beautiful=아름답다)

쌀트와이병곰 브레아뷔히어 크눔 뽀어 싸알 나흐

សាលាថ្វាយបង្គំព្រះវិហារខ្ញុំពិតជាស្អាតណាស់ ។

D. 크마에 **찌어**(**წი**)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자격을 나타내는 영어의 as(~로서)의 의미로도 쓰여진다.

크눔니움찌어(ក្នុងនាម័)와 함께 ‘as (~로서)’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는 그의 아들로써 열심히 공부했다.

꼬안 반 컴뽕링 리언 찌어고운뽕로r르베h꼬안

គាត់បាទិតខំប្រឹងរៀនជាកូនប្រុសរបស់គាត់។

꼬알 반 켜 컴쁘렁 리언 나 크농니음찌어 고운쁘로h 러버h 아욱뿔꼬알

គាត់បានខិតខំប្រឹងប្រែងណាស់ក្នុងនាមជាកូនប្រុសរបស់ឪពុកគាត់។

C. 3형식

주어 + 동사 + 목적어[겪어볼]

우리는 캄보디아 음식을 좋아한다.

ប្រ(យ)យូង ខ្លួន មេរៀន គ្រាម ពួកយើងចូលចិត្តម្ហូបខ្មែរ ។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ប្រែយ៉ា យេស៊ូ គ្រូរាន ប្រ(យ)យូង ពេទ្យាវត្តក្រី ព្រះយេស៊ូស្រលាញ់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 ។

ប្រែយ៉ា យេស៊ូ គ្រូរាន យូង រូរាល់ គ្រាម ព្រះយេស៊ូស្រឡាញ់យើងរាល់គ្នា។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ប្រែយ៉ា យេស៊ូ បង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ព្រះយេស៊ូបានបង្កើតផ្ទៃមេឃ និង ផែនដី ។

D. 4형식

주어 + 동사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គ្រូ បង្ហាញ ក្រាហ្វ ក្រាហ្វ ក្រាហ្វ ខ្ញុំបានអោយកាដូទៅគាត់ ។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ប្រែយ៉ា យេស៊ូ បង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ព្រះយេស៊ូបានប្រគល់ឲ្យអ្នករាល់គ្នា ។

ព្រះជាម្ចាស់បានប្រគល់ឲ្យអ្នករាល់គ្នា ។

● **설명** - 위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크마에는 습관적으로 4형식 형태의 문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영어가 중복을 싫어하듯이 크마에 동사 역시 명사가 두 개 나란히 겹쳐서 사용되는 것을 싫어하는 듯하다. 그래서 주로 크마에 동사는 영어와 한국어의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 앞에 ‘**들**’ (받침) 이나 ‘**떠**(으)’, 혹은 ‘**떠**(으)달(받침)’을 붙여 주로 3형식 형태로 표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ប្រែយ៉ា យេស៊ូ បង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ប្រាណ ព្រះយេស៊ូបានប្រគល់ឲ្យអ្នករាល់គ្នា ។

ព្រះជាម្ចាស់បានប្រគល់ឲ្យអ្នករាល់គ្នា (ពួកយើង) ។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ក្នុង ប្រាប់ អោយ កាដូ ដល់ គាត់ ។

☞ 礼物을 나타내는 단어로 '엄나오이(អំណោយ)', '까도우(កាដូ)' 가 있다.

그러나 엄나오이(អំណោយ)는 '베풀어 주는 선물'의 의미로 주로 신이나 왕, 혹은 나눔이나 구제하는 사람들이 베푸는 선물을 뜻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ex) 홍수 일어난 지역을 위해서 쌀을 준다.

គ្រប់ ទីកន្លែង ទូទាំង ប្រទេស យើង បាន ប្រគល់ ឲ្យ គ្រប់ មន្ត្រី ក្រសួង ពាក់ព័ន្ធ ។

ព្រះបិតា យើង បាន ប្រគល់ ឲ្យ គ្រប់ មន្ត្រី ក្រសួង ពាក់ព័ន្ធ ។

선교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난 10년동안 매년 쌀을 나누고 있다.

គ្រប់ ទីកន្លែង ទូទាំង ប្រទេស យើង បាន ប្រគល់ ឲ្យ គ្រប់ មន្ត្រី ក្រសួង ពាក់ព័ន្ធ ។

បេសកកម្ម ព្រះបិតា យើង បាន ប្រគល់ ឲ្យ គ្រប់ មន្ត្រី ក្រសួង ពាក់ព័ន្ធ ។

☞ 로알츠남(វាល់ឆ្នាំ), 찌어리로알츠남(ជាវៀងវាល់ឆ្នាំ)은 같은 표현으로, 문어체에서는 주로 찌어리로알츠남(ជាវៀងវាល់ឆ្នាំ) 으로 쓴다.

E.5형식

주어 + 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나는 그가 매일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

ក្នុង ខ្ញុំ ចង់ ធ្វើ ឲ្យ គាត់ សប្បាយ រាល់ ថ្ងៃ ។

나는 그가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ក្នុង ឲ្យ គាត់ ប្រាកដ ប្រសើរ បន្ថែម បន្តិច បន្តួច ។

ខ្ញុំ សង្ឃឹម ថា គាត់ នឹង មាន ភាព ស្មោះ ត្រង់ ជាង នេះ ។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신다.

គ្រូ យេស៊ូ បាន ប្រគល់ ឲ្យ គ្រប់ មន្ត្រី ក្រសួង ពាក់ព័ន្ធ ។

ព្រះយេស៊ូ បាន ប្រគល់ ឲ្យ គ្រប់ មន្ត្រី ក្រសួង ពាក់ព័ន្ធ ។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하신다.

쁘레아 예수 트뵤아오이 뿌어여응 미언피읍 쓰모뜨롱(띠얼뜨롱)

ព្រះយេស៊ូវធ្វើឲ្យពួកយើងមានភាពស្មោះត្រង់(ទៀតត្រង់)។

● **설명** - 위에서 본 5형식은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축약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본동사가 하나인 상태에서 주어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고 강조를 위해 두 개어 주어 중에 하나를 동사의 목적어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의미상 주어로 칭한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크마에는 영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만 동사의 목적어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며 의미상 주어라는 말도 없다.

▷ 5형식을 3형식으로 크마에는 표현하기를 즐겨한다.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

He made us happy.

꼬알 반 트뵤 아오이 뿌(억)여응 썸바이 តាតបានធ្វើឲ្យពួកយើងសប្បាយ។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5형식)

Jesus cleaned our sins(3형식)

쁘레아 예수 반 리영 쏬안 엄쁘밥 크눔(3형식) ព្រះយេស៊ូវបានលាងសំអាតអំពើបាបខ្ញុំ។

쁘레아 예수 반 쏬안 밥 크눔 아오이 썸래아ㅎ 싸안(5형식)

ព្រះយេស៊ូវបានសំអាតបាបខ្ញុំឲ្យជ្រះស្អាត។

● **설명** - 위 문장에서 영어와 한국어와는 달리 크마에 문장은 목적 보어 앞에 ‘아오이(ᄃᆞᆫ)’를 붙여 주어가 하는 행동의 결과와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문장의 제 3형식의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썸안(សំអាត) 뒤에 ‘아오이(ᄃᆞᆫ)’가 첨가된 것은 주어의 행동과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일 뿐 문장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자가 생각건대 ‘아오이’가 자주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 앞에 쓰인다는 것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실수를 줄이고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문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면, 5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아오이(ᄃᆞᆫ)’의 첨가는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장의 5형식에 대한 이해는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 골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 위에 골격을 꾸며주는 수식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훨씬 깊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 5형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크마에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5형식의 형태를 중심으로 문장을 분석해보는 것이 해석과 작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5) 크마에 동사의 명사화

A. 크마에 동사는 동사 앞 혹은 뒤에 **까(ka)**, **세끄데이(세크티)**, **피업(파티)**을 붙여 명사화시킬 수 있다.

슬로란(ស្រឡាញ់)(동사)	- 세끄데이슬로란(សេក្តីស្រឡាញ់)(명사)
송킴(សង្ឃឹម)(동사)	- 세끄데이썽킴(សេក្តីសង្ឃឹម)(명사)
뜨라하으(ត្រាស់ហៅ)(동사)	- 까뜨라하으(កាត្រាស់ហៅ)(명사)
주업(ជួប)(동사)	- 까주업(កាជួប)(명사)

B. 크마에 동사구는 동사구 앞에 **까(ka)**를 붙임으로써 명사화시킬 수 있다.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គាត់ចូលចិត្ត(កា) បើក ម៉ូតូ ។

그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គាត់ចូលចិត្ត(កា) អាន ប្រការ ។

គាត់ចូលចិត្ត(កា) អាន ប្រការ ។

그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한다.

គាត់ចូលចិត្ត(កា) ចងចាំ ប្រការ ។

គាត់ចូលចិត្ត(កា) ចងចាំ ប្រការ ។

● **설명** - 크마에 동사는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동사 앞에 ‘**까(ka)**’를 붙여 표현한다. 하지만 대부분 ‘**까(ka)**’를 붙이지 않고 바로 동사 뒤에 동사를 붙여 ‘~하는 것’의 의미를 표현한다. 영어와 한국어는 각각 to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동사 원형 뒤에 ‘~는 것’을 붙여 표현한다. 즉 크마에는 동사의 명사화를 ‘**까(ka)**’를 통해 하고 영어와 한국어는 각각 동사의 원형과 기본형에 to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는 것’을 붙여 표현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크마에 동사구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동사구 앞에 ‘**까(ka)**’를 붙여 동사구가 문장 전체의 주어를 이루는 것을 표현한다. 이 때는 ‘**까(ka)**’를 생략할 수 없다.

오늘 그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កាប្រជុំ កាន់ ក្រែង ត្រូវ បាន ដឹង ថា វា គឺ ជា របៀប ដ៏ សំខាន់ ណាស់ ចំពោះ ខ្ញុំ ។

ការជួបគាត់នៅថ្ងៃនេះវាគឺជាវិធីសំខាន់ណាស់ចំពោះខ្ញុំ។

성경을 읽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កា អាន ប្រព្រះគម្ពីរ គឺ ជា វិធី សំខាន់ ណាស់ ចំពោះ គ្រីស្ទបរិស័ទ ។

ការអានព្រះគម្ពីរគឺជាវិធីសំខាន់ណាស់ចំពោះគ្រីស្ទបរិស័ទ។

전도를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다.

កា ប្រែប្រួល ចិត្ត គឺ ជា កិច្ច របស់ គ្រីស្ទបរិស័ទ ។

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 គឺជាការកិច្ចរបស់គ្រីស្ទបរិស័ទ ។

(6) 보조동사

영어에는 보조동사가 있다. can, may, will, shall, must, might, should, could, would 가 그것이다. 한국어는 보조동사의 개념이 없다. 한국어는 어미의 변화를 통해 시제와 모든 동사의 형태와 역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어미변화의 자유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영어도 어미가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 크마에는 아예 어미가 없고 영어가 가지고 있는 보조 동사도 거의 없다. 보조동사로 불려질 수 있는 것으로 능(能), 아읏(아읏) 등이 있다. 크마에는 영어의 보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를 동사 앞에 붙인다. 이 때의 부사는 주로 '~따에(태)'로 쓰인다.

크마에 보조동사 : 능(能), 아읏(아읏), ~ 반(~반)

우리는 오늘 차를 타고 깜뽕싸움에 놀러 갈 것이다.

ប្រយ័ត្ន ធន គ្រាន់ ប្រើប្រាស់ កាប្រជុំ ត្រូវ បាន ដឹង ថា វា គឺ ជា របៀប ដ៏ សំខាន់ ណាស់ ចំពោះ ខ្ញុំ ។

ពួកយើងនឹងជិះឡានទៅលេងកំពង់សោមថ្ងៃនេះ។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we will love Jesus

ប្រយ័ត្ន ធន គ្រាន់ ប្រើប្រាស់ កាប្រជុំ ត្រូវ បាន ដឹង ថា វា គឺ ជា របៀប ដ៏ សំខាន់ ណាស់ ចំពោះ ខ្ញុំ ។

ពួកយើងនឹងស្រលាញ់ព្រះយេស៊ូវ។ (យើងរាល់គ្នា យល់រាល់គ្នា យល់រាល់គ្នា យល់រាល់គ្នា)

그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ក្រោយ អាយត ឆ្រិះ បង ប្រើ គាត់ អាច ច្រៀង បាន ពិរោះ ។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we can love Jesus with all our hearts

여응r로얄크니어 아잇 쓸로란 브레아예수 다오이 오ㅎ삐쩍

យើងរាល់គ្នាអាចស្រលាញ់ព្រះយេស៊ូវដោយអស់ពីចិត្ត។

● **설명**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능**(**နိုင်**)’과 ‘**아읇**(**အပူ**)’ 외에 크마에는 보조동사가 없다. 영어에서 보조동사를 통해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크마에서는 ‘**따에**(**တို**)’로 표현된다. 아래에 ‘따에’로 표현되는 예를 모아본다.

A. ~따에(ㄸ) 표현되는 크마에 보조동사

~ 해야 한다 - **프러으따에**(**ត្រូវតែ**), **꾸어따에**(**គួរតែ**), **꾸어아오이**(**គួរអោយ**), **꺼바이아오이**(**គប្បីអោយ**)

우리는 반드시 크마에어를 배워야 한다.

ប្តូរមេត្តា ច្រើនដង លីវ ក្នុង ពេល ពួកយើងត្រូវបានសាសនាខ្មែរ។

[illegible]

우리는 반드시 크마에를 배워야한다.

ប្រើប្រាស់ប្រព័ន្ធ r ដោយសេរី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뿌어여응 뜨리워따에 쓸로란 뿌레야예수 아오이 오빠쩨

ពួកយើងត្រូវតែស្រលាញ់ព្រះយេស៊ូឲ្យអស់ពីចិត្ត ។

뿌어여응 꾸어따에 쓸로란 뿌레야예수 아오이 오빠 두웅쩔 르버 영

ពួកយើងគួរតែស្រលាញ់ព្រះយេស៊ូវឲ្យអស់ពីដួងចិត្តរបស់យើង។

뽼레아예수 끄찌어 뽼레아웅 다엘 여응크놈 꾸어따에 쓸로란

ព្រះយេស៊ូវ គឺជាព្រះអង្គដែលយើងខ្ញុំគួរតែស្រលាញ់ ។

ព្រះយេស៊ូគឺជាព្រះអង្គដែល យើងខ្ញុំគប្បីអោយស្រលាញ់ ។

ក្នុង បាឡាវិទ្យា ក្រាហ្វីក្រេន ខ្ញុំតែងតែប្រាកដគេឈ្មោះ។

ខ្ញុំតែងតែដើរលេងផ្សាររាត្រី រាល់យប់ថ្ងៃសុក្រ។

ខ្ញុំតែងតែចូលរួមប្រជុំអធិស្ឋាននៅថ្ងៃសៅរ៍ ជារៀងរាល់សប្តាហ៍។

ខ្ញុំតែងតែហាត់សមច្រៀងថ្វាយបង្គំរាល់ថ្ងៃសៅរ៍។

~주저하여 - 쓰떼아쓰떼으~ 라이 (ស្លាក់ស្លើរ~ឡើយ), r라레엑 ~라이 (រ៉ាណ់~ឡើយ)

ក្នុងពេលនេះ បងប្អូនគ្រប់រូប តើមានអ្វីដែលបំភ័យចិត្តអ្នកដែរឬទេ?

ក្នុង ឆ្នាំ ២០២០ ខ្ញុំ ជិត ឆ្លង ហើយ។

☞ ‘~ 거의’ 에 해당 되는 단어 ‘**쓰떠으따에(ស្ទើរតែ)**’가 있지만, 캄보디아어에서는 ‘**쓰떠으따에(ស្ទើរតែ)**’ 단어를 즐겨 쓰지 않고, ‘~가까이’ 에 해당하는 **쩐(~ជិត)**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로 표현한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ჟოუ კომ **სძეაჲსძეჲ** კნო **ჟა** ჟენო **ჟმპუჲ** **ჸ** **პრეა** **ჟიერჟაჸ** **რაი**

ចូកុំស្ទាក់ស្ទើរក្នុងការចេញមកចំពោះព្រះជាម្ចាស់ឡើយ។

의논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오십시오.

바으미언 어봐이 종빠 피어싸 쫘 **꿈** **r라레엑** **라이** **목(으)로** **크눔** **목**

បើមានអ្វីចង់ពិភាក្សាចូលកុំរំពៃឡើយមករកខ្ញុំមក។

c. 단지, 막 - **떠음따에(ទើបតែ)**

우리는 겨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뿌어여응 **떠음따에** **반** **올빠** **까뿐** **누h** **ពួកយើងទើបតែបានយល់ពីការពិតនោះ។**

나는 이제 막 크마애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다.

ក្រុម **떠음따에** **잡프다음** **r리언****피어싸** **크마에** **ខ្ញុំទើបតែចាប់ផ្តើមរៀនភាសាខ្មែរ។**

d. 점점 더 ~수록 - **간따에(កាន់តែ), r를따에(រឹតតែ)**

우리는 점점 더 자라고 있다.

뿌억영**간따에****툼라응****라우** **ពួកយើងកាន់តែធំឡើងៗ**

우리는 날로 날로 친해지고 있다.

빠므이**통하이** **떠으** **므이****통하이** **여응** **간따에** **미언** **피읍** **쓰넨****쓰날**

ពីមួយថ្ងៃទៅមួយថ្ងៃយើងកាន់តែមានភាពស្និទ្ធស្នាល។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ㄱ롬쫌눔 ㅽ억 ㄱ안따에 미언 ㅽ눔 ㄹ눅 ㄱ랑응라응
 ㄱ롬쫌눔 ㅽ억 ㄱ안따에 미언 ㅽ눔 ㄹ눅 ㄱ랑응라응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친해지고 있다.
 ㄱ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ㄱ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ㅽㄱㄹ데이 ㅽ눔어 ㄹ름버ㅎ ㅽ마ㅽㄱ롬쫌눔여응 ㄱ안따에 ㄱ랑응라응(ㅽ름은 ㄹ응) ㅽ ㄹ이 통아이
 ㅽ으 ㄹ이통아이
 ㅽ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e. 단지 ~로만 - ㄹ름따에(ㄹ름, ㅽ에ㄹ이똥노(ㄹ름쫌눔 ㅽ억))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 아읏 ㅽㅽㅽ을 반 ㄱ ㅽ롬어h ㅽ ㄹ로야 ㅽ레야 예수 ㅽ에 무이 ㅽ노h
 ㅽ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ㄱ라우 ㅽ ㄱ아티탄 ㄱ 먼아읏 본펜 아레악 ㅽ땅 반 ㄹ으이
 ㄱ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ㅽ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ㅽ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ㅽ롬쫌눔 ㅽ억여응 ㄹ름따에 미언 ㅽ업스넨스날 ㅽ ㄹ이통아이 ㅽ으 ㄹ이똥아이

Khmer writing

3강

형용사

(**ក្រណាម**, គុណនាម)

형용사의 정의

형용사의 비교급

형용사에 해당하는 어구

형용사구

형용사절

3강 형용사

형용사의 정의

영어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니엄នាម)과 대명사(ဆွဲနိယံសព្ទនា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크마에도 있다. 크마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 즉 형용사를 ‘**ကုန်နိယံ(គុណនាម)**’이라 칭한다.

크마에 형용사의 위치

1. 하나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크마에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오른쪽에 놓인다.

형용사 + 명사(한국어) ⇄ 명사 + 형용사 (크마에)

<예문>

많은 고기 (ટ্রেই 찌라는 ត្រីច្រើន), 큰 비(플리엥 톰 ភ្លៀងធំ),
정직한 소년 (꼬마라 쓰모뜨롱 កុមារស្មោះត្រង់), 훌륭한 학생(셋 뿌가에 សិស្សពូកែ),
모든 어린이(크메잉 떼앙오 ក្មេងទាំងអស់), 작은 차 (란 또잇 ឡានតូច),
낡은 집(프떼아짜ㅎ ផ្ទះចាស់), 썩은 고기(트레이 쏘오이 ត្រីស្អុយ),
흰 옷(아으 쏘 អាវស), 노란 책(씨어퍼으 뿌아 르엥 សៀវភៅពណ៌លឿង),
이 시계(니얼레까 니 ឆ្មឺកនេះ), 저 시계(니얼레까 누 ឆ្មឺកនោះ),
어떤 책(씨어퍼으 무이 សៀវភៅមួយ), 나의 가방(까보읍 r르버h 크눔 កាបូប របស់ខ្ញុំ)

(대)명사의 소유격 + 형용사 + 명사(한국어) ⇄ 명사 + 형용사 + 명사의 소유격(크마에)

<예문> 나의 아름다운 여자친구 (송싸도싸안r르보h크눔, សង្ឃដ៏ស្អាតរបស់ខ្ញុំ)

지시형용사 + 기수 + 형용사 + 명사(한국어) ⇄ 명사 + 형용사 + 기수 + 지시형용사(크마에)

<예문> 이들 두 개의 큰 사과들 (플라에뽀 톰 ដៃ, ផ្លែប៉មធំពីរនេះ)

지시형용사+서수+기수 +형용사 +명사(한국어) ⇄ 명사+기수+형용사+서수+지시형용사(크마에)

<예문> 이들 첫 번째 두 개의 큰 사과들(플라에뽀디무이톰ដៃ, ផ្លែប៉មទីមួយធំពីរនេះ)
소유격 +기수 +명사+모두의+명사(한국어) ⇄ 명사+명사+모두의+기수+(របស់)+대명사

<예문> 그의 두 형제 모두의 미래(아나꾼뽀운떼앙빠r르버h꼬안, អនាគតប្អូនទាំងពីររបស់គាត់។)
(미래 + 형제 + 두 사람 모두의 [떼앙빠(ទាំងពីរ)] + 소유격)

20) 많은 무리, 그룹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본다 + 명사 បណ្តាល + នាម

모하 + 준 មហា +ជន

붕 + 명사 រូង + នាម

명사 + 찌라온 ច្រើន (찌어찌라온 ជាច្រើន)

☞ 본다, 모하준은 주로 옛날시대에 썼던 표현으로 요즘에는 찌어찌란(ជាច្រើន) 으로 많이 사용한다.

☞ 붕(រូង)은 주로 동물무리에 사용하는 단어다. 사람무리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용된다.

<예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본다므눅찌어 찌라온 반 다으땀 ប្រេអាយេស៊ូ បណ្តាមនុស្សជាច្រើនបានដើរតាមព្រះយេស៊ូវ។

모하쥔 다으룩 땀 ប្រេអាយេស៊ូ មហាជនដើរតាមព្រះយេស៊ូវ។

붕므눅 다으 땀 ប្រេអាយេស៊ូ រូងមនុស្សដើរតាមព្រះយេស៊ូវ។

므눅찌라온 다으 땀 ប្រេអាយេស៊ូ មនុស្សច្រើនដើរតាមព្រះយេស៊ូវ។

많은 학생 본다 췌 찌어찌란 បណ្តាសិស្សជាច្រើន។

많은 그리스인 본다 크리스티언 찌어찌란 បណ្តាគ្រីស្ទានជាច្រើន។

21) 적은 + 명사 ☞ 명사 + 떼잇

<예문>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랐다.

(므눅떼잇 다으 땀 ប្រេអាយេស៊ូ, មនុស្សតិចដើរតាមព្រះយេស៊ូវ)

22) 5천명에 맞먹는(달하는,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므눅쁘로하엘쁘람쁘안네악 다으땀 ប្រេអាយេស៊ូ, មនុស្សប្រហែល៥០០០នាក់ដើរតាមព្រះយេស៊ូវ)

형용사의 비교급(کمتر کمتری یا کمتر کمتری) 혹은 کمتر کمتری(کمتر کمتری)

크마에 형용사에도 역시 한국어와 영어처럼 비교급이 존재한다. 크마에 비교급 역시 한국어와 영어처럼 단순비교,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뉘어진다.

단순비교	비교급	최상급
(کمتر کمتری)	(کمتر کمتری)	(کمتر کمتری)
로오 도잇 ډډډډ	로오 짜잉 ډډډډ	로오 범풋(짜잉게) ډډډډ (ډډډډ)
크뿌ㅎ 도잇 ډډډډ	크뿌ㅎ 짜잉 ډډډډ	크뿌ㅎ 범풋(짜잉게) ډډډډ
뿌가에 도잇 ډډډډ	뿌가에 짜잉 ډډډډ	뿌가에 범풋(짜잉게) ډډډډ

그는 나처럼 좋은 사람이다 (단순비교)

(꼬안 꼬 짜어 므눅 로오 도잇 크눔 ډډډډډډډډډډډډ)

그는 나보다 좋은 사람이다 (비교급)

(꼬안 로오 짜잉 크눔 ډډډډډډډډډډډډ)

그는 가장 좋은 사람이다 (최상급)

(꼬안 로오 짜잉게 ډډډډډډډډډډډډ)

(꼬안 로오 범풋 도 우돔 ډډډډډډډډډډډډ ډډډډډډډډډډډډ)

형용사에 상당하는 어구

영어와 한국어는 동사와 명사 등을 형용사에 상당하는 어구로 변형하는 문법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가다-가는, 영어는 go-to go, going, gone 등의 변형을 통해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한다. 크마에는 이러한 문법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는 차 : 달리다(동사) + 는(형용사격 조사) + 명사 = 달리는 차

the car to run : the car (형용사에 의해 한정되는 대상으로서의 명사)

+ to run(to 부정사) = 달리는 차, the car to run

the running car : the(정관사) + running(분사) + 명사 = 달리는 차,

‘the running car’의 크마에 형식: ډډډډ(자동차) + ډډډډ + ډډډډ(현재진행형) + ډډډډ(동사)

(ډډډډډډډډډډډډ ډډډډډډډډډډډډ)

▷ 위에서 본 것처럼 크마에는 동사 ‘**r**ត្ថ(ត្ថ)’이 아무런 변형 없이 ‘**r**ត្ថ(ត្ថ)’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크마에는 동사를 형용사화 하는 문법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동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동사, 영원한 동사가 크마에 동사다.

그러면 크마에는 동사를 어떻게 형용사화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사자체의 변형이나 변화를 통해서는 이를 수 없다. 크마에 동사는 ‘**다엘**(ដៃល)’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해낸다. 앞에서 예를 들어 보았지만 여기서 한 번 상세하게 예를 보면서 정리해보자

<예문>

달리는 차 **란 다엘** ក្របី ត្ថ **ឡានដៃលកំពុងរត់។**

집으로 향해 가는 차

란 다엘 មីន ច្របៅ ពីរ ផ្ទះ ឡានដៃលមានឆ្ពោះទៅផ្ទះរបស់ខ្ញុំ

어제 저녁에 만난 그 사람

브룩 다엘 គ្រូ បង ប្អូន កាលពីយប់មិញ មនុស្សដៃលខ្ញុំបានជួបកាលពីយប់មិញ

▷ 크마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어가 몹시 긴 것도 있지만 위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를 바로 형용사화 시키는 문법 내용이 없어 형용사절을 이끄는 ‘**다엘**(ដៃល)’을 써서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형성된 것을 구라고 하는 데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사항들이 크마에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 빗대어 크마에의 형용사구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영어의 형용사구>	<한국어의 형용사구>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	주어를 뺀 문장의 마지막 동사 + 는(은)
전치사 + 명사	연속된 단어들의 마지막 명사 + 의
분사 구문	
the car to run	달리는 차
the car in the house	집에 있는 차
the car repaired by my father	아버지에 의해 수리된 차
my father's car	우리(의) 아버지의 차

▷ 크마에는 영어와 같은 to 부정사나 분사구문의 문법 내용이 없다. 그리고 한국어의 문법에 있는 ‘조사’가 없어 한국어 문법처럼 형용사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어 문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 + 명사 의 형태로 형용사구를 만든다.

집 안에 있는 차 the car in the house

란너우크농프떼아 ឆ្មារនៅក្នុងផ្ទះ។

란(명사) + 너으크농(전치사) + 프떼아(명사)

● **설명** :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마에 문법에도 전치사와 명사를 결합하여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게 함을 볼 수 있다.

1. 전치사 + 명사로 이루어진 형용사구 (ក្រសាមប្រែក្រងនិយម)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구가 된다. 형용사구는 두 단어가 합쳐져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크마에 전치사(ត្រណាក់), 크마에 문법에도 전치사가 있다. ត្រណាក់(ធ្លាក់)이라 칭한다.

1) 방향(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 + 명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경우

앞 - 너으묵(នៅមុខ)

우리 집 앞 코코넛 (다음동너으묵프떼아크눔 ដើមដូងនៅមុខផ្ទះខ្ញុំ។)

뒤 - 너으끄라오이(នៅក្រោយ)

우리 집 뒤 코코넛 (다음동너으끄라오이프떼아크눔 ដើមដូងនៅក្រោយផ្ទះខ្ញុំ។)

옆 - 너으쩨(នៅជិត), 너으끄바에(នៅក្បែរ)

우리 집 옆 코코넛 (다음동너으쩨프떼아크눔 ដើមដូងនៅជិតផ្ទះខ្ញុំ។)

우리 집 바로 옆 코코넛 (다음동너으끄바에프떼아크눔 ដើមដូងនៅក្បែរផ្ទះខ្ញុំ។)

위 - 너으르(នៅលើ)

우리 집 위 강아지 (고운처까에너으러으프떼아크눔 កូនឆ្កែនៅលើផ្ទះខ្ញុំ។)

아래 - 너으끄라움(នៅក្រោម)

우리 집 아래 강아지 (고운처까에너으끄라움프떼아크눔 កូនឆ្កែនៅក្រោមផ្ទះខ្ញុំ។)

밖 - **너으끄라오이**(នៅក្រោយ)

우리 집 뒤 강아지 (고운처가에너으끄라우프떼아크눔 **កូនឆ្កែនៅក្រោយផ្ទះខ្ញុំ**)

안 - **너으크농**(នៅក្នុង)

우리 집 안 강아지 (고운처가에너으크농프떼아크눔 **កូនឆ្កែនៅក្នុងផ្ទះខ្ញុំ**)

향하여 - **츠뿌허h**(ឆ្ពោះ/សំដៅ)

우리 집을 향해 가는 차 (란츠뿌허h떠우프떼아르봏크눔 **ឡានឆ្ពោះ(សំដៅ)ទៅផ្ទះខ្ញុំ**)

~따라 - **땀**(តាម)

우리 집을 따라 있는 국도 (플러워지언땀프떼아르봏크눔 **ផ្តល់រូបជាតិតាមផ្ទះរបស់ខ្ញុំ**)

맞은 편 - **뿔목**(ទល់មុខ)

집 맞은편에 있는 국도 (플러으찌언뿔목프떼아르봏크눔 **ផ្តល់រូបជាតិទល់មុខផ្ទះរបស់ខ្ញុំ**)

붙어있는 - **너으조압**(នៅជាប់)

집에 붙어있는 간판 (빠노너으조압(녕)프떼아크눔 **ប៉ាន់នៅជាប់ផ្ទះរបស់ខ្ញុំ**)

사이의 - **너으쑹강**(នៅសងខាង/នៅចន្លោះ)

우리 집 사이에 있는 코코넛 (다음동너으쑹강프떼아크눔 **ដឹមជុងនៅសងខាងផ្ទះខ្ញុំ**)

중간의 - **크농보리벤**(ក្នុងបរិវេណ/នៅកណ្តាល)

우리 집 가운데 있는 코코넛 (다음동크농보리벤프떼아크눔 **ដឹមជុងក្នុងបរិវេណផ្ទះរបស់ខ្ញុំ**)

주위의 - **쭈원**(ជុំវិញ)

우리 집 주위의 코코넛 (다음동쭈원프떼아크눔 **ដឹមជុងជុំវិញផ្ទះខ្ញុំ**)

~에서 - **목뻔**(មកពី)

우리 집에서 온 차 (란목뻔뻔프떼아크눔 **ឡានមកពីផ្ទះខ្ញុំ**)

~떨어진 - **칭아이빠**(ឆ្ងាយពី)

집에서 떨어진 농장 (쩨까칭아이빠프떼아르봏크눔 **ចំការឆ្ងាយពីផ្ទះរបស់ខ្ញុំ**)

2) 시간을 표시하는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는 첨가어) + 명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경우

~시의 - **너으**(នៅ) + **마옹**(ម៉ោង)

두시의 데이트 (난쭈업너으마옹뻔 **ណាត់ជួបនៅម៉ោងពីរ**)

~달의 - 너(ㄴ) + 카에(ㄱ)

이 달의 월세 (틀라이프데악너으카에니 ចូលផ្ទះនៅនេះ។)

~년의 - 너(ㄴ) + 츠남(ㄷ)

이 해의 성공 (피업쪽째이니으츠남니 ភាពជោគជ័យនៅឆ្នាំនេះ។)

~부터의 - 째(ㄷ), 땅(ㄷ)

~부터는 크게 두 개로 구분 : 째(ㄷ)는 현재 혹은 미래부터, 땅(ㄷ)는 과거부터
내일부터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크롬능 컴퍼링리언 째(ㄷ)아이싸엑또떠으 ខ្ញុំនឹងប្រើប្រាស់ប្រព័ន្ធប្រព័ន្ធនេះ។

오늘 2시부터 캄보디아 강의가 있습니다.

영미언트나리언피어싸크마애째(ㄷ) 마웅(ㄷ)씨엘통아이니

យើងមានថ្នាក់រៀនភាសាខ្មែរប្រចាំថ្ងៃនេះ។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크롬반(ㄷ)으르(ㄷ)레아(ㄷ)수(ㄷ)땅(ㄷ)꼬(ㄷ)마(ㄷ)라(ㄷ)피(ㄷ)업 ខ្ញុំបានជឿលើព្រះយេស៊ូវតាំងពីកុមារភាព

~전, ~전부터 - 갈(ㄷ)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서 문어체 표현에서는 갈(ㄷ)를 붙인다.

2년 전부터 있었던 축제 (빼티본갈(ㄷ)츠남문 ពិធីបុណ្យកាលពីពីរឆ្នាំមុន)

~후의 - 마웅(ㄷ) ម៉ោង (카에 ខែ, 츠남 ឆ្នាំ) + 꼬(ㄷ)라(ㄷ)오(ㄷ)이(ㄷ) (ក្រោយ)

년 후의 축제 (빼티본 빼츠남(ㄷ)꼬(ㄷ)라(ㄷ)오(ㄷ)이 ពិធីបុណ្យពីរឆ្នាំក្រោយ)

~지난 - 권(ㄷ)롱(ㄷ)폰(ㄷ) (កន្លងផុត)

2년 지난 재해 (모하 온드라이 권(ㄷ)롱(ㄷ) 폰(ㄷ) 떠(ㄷ)으(ㄷ) 빠(ㄷ)치(ㄷ)남 មហន្តរាយកន្លងផុតទៅពីរឆ្នាំ។)

~이래의 - 땅(ㄷ) (តាំងពី)

어릴 때부터의 상처(ㄷ)자(ㄷ)국(ㄷ) (쓰남 រឿងអំពីដំបូងក្នុងរយៈពេលនោះ។)

~전의 - 문(ㄷ) (មុន)

2년 전의 축제 (빼티본(ㄷ) 빼츠남문(ㄷ) (혹은 빼티본문(ㄷ) 빼츠남) ពិធីបុណ្យពីរឆ្នាំមុន)

~ 까지의 - r₂호운달 (រហូតដល់)

마지막까지의 도전 (까살라봉 r₂호운달 띠 반쪽 ការសាកល្បងរហូតដល់ទីបញ្ចប់។)

~ 사이의 -로뵈잉(រវាង), 전노(ចន្លោះ)

2일과 4일 사이의 세미나

(씩카쌀라전노h 통아이띠뻬닝통아이띠부언 សិក្ខាសាលាចន្លោះថ្ងៃទីពីរនិងថ្ងៃទីបួន។)

~로부터의 - 째뻬(ចាប់ពី)

2일부터 있는 세미나 (씩카쌀라째뻬통아이띠뻬 សិក្ខាសាលាចាប់ពីថ្ងៃទីពីរ។)

▷ 이외에도 크마에 문법에는 접속사(쳐노압)와 유사한 전치사가 더 있다. 이 부분은 부사 부분에서 다루어보도록 하자. 위에서 살펴본 대로 크마에는 전치사+명사의 결합을 통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존재한다.

형용사절

영어와 한국어에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에서 절의 종류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절은 단어(뻬억₁ព្យ) 혹은 구가 하는 역할이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크마에 문법에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존재한다. 하지만 형용사절 혹은 부사절이라 칭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 문법을 차용해서 크마에 형용사절을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영어와 한국어에서 선행하는 절 혹은 뒤 따르는 절 앞의 명사를 그 절과 연관된 다른 절이 수식을 하는 경우, 수식을 받는 절을 주절, 수식을 하는 절을 종속절이라 하는 데 종속절이 형용사절이 된다. 영어에는 관계대명사(who, which, that)가 포함된 절이 형용사절이 된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한국사람이다.

(뻬쓰레이 다엘 쓸로란 꼬안 찌어 쥘지어꼬레 មិត្តស្រីដែលខ្ញុំស្រឡាញ់គាត់ជាជនជាតិកូរ៉េ។)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캄보디아 음식은 꾸이띠유이다

(며호웁크마에다엘크눔쥘쩔찌영게이끄꾸이띠유 ម្ហូបខ្មែរដែលខ្ញុំចូលចិត្តជាងគេគឺគុយទា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이다.

(쁘로떼꼬레다엘 크눔 쓸로란 꼬찌어쁘로떼 다엘 미언 까릭쩔라는 캉세읏뜨게읏,

ប្រទេសកូរ៉េដែលខ្ញុំស្រឡាញ់ គឺជាប្រទេសដែលមានការរីកចម្រើនខាងសេដ្ឋកិច្ច)

● 설명 : 크마에는 영어의 관계대명사와 흡사한 ‘다엘(ដល់)’이 있다. 이 ‘다엘(ដល់)’은 영어의 관계대명사인 ‘that’과 같이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이끈다. 하지만 ‘다엘(ដល់)’은 영어에서 관계사 앞에 선행사가 오듯 선행사를 동반하지만, 영어의 관계대명사처럼 자체 안에 대명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Khmer writing

4강

부사

(꾼꺈리야, គុណកិរិយា)

부사의 정의
부사의 형태
부사의 역할
의문부사
부사구
부사절

4강 부사 (ကုဏ္ဏိယာ, ကုဏ္ဏိယာ က္ကိယာ က္ကိယာ)

1. 부사의 정의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고 또 다른 형태의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 나 구 혹은 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가리켜 부사라고 한다. 크마에 문법에도 부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존재하고 크마에 문법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일컬어 **ကုဏ္ဏိယာ** 혹은 **က္ကိယာ**라 칭한다. 크마에 문법 책들은 부사를 형용사(**ကုဏ္ဏိယာ**), 동사(**က္ကိယာ**) 또는 다른 부사(**ကုဏ္ဏိယာ**)를 한 번 분명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크마에 문법, 춘치영). 이러한 부사의 정의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에서의 부사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할 것이다.

2. 부사의 형태

영어는 부사의 특별한 형태가 있다. 형용사 + 어미(ly)를 붙여 주로 부사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한국어는 동사 + ~하게 로 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크마에는 동사와 혹은 형용사를 부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크마에는 문장 안에서 용례를 통해 부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1) **ကုဏ္ဏိယာကလ-시간부사**

မ္ဗိလ်မိတြ(ຍျီလ်မိတြ- 어제), ဖုဏ်မုဏ်, မုဏ်မုဏ်(မုဏ်မုဏ်မိတြ, မုဏ်မုဏ်မုဏ် - 조금전에),
တွာအိမုဏ်, တွာမုဏ်တွာအိမုဏ်(တွာမုဏ်, တွာမုဏ်တွာမုဏ် - 몇일 전에),
တွာအိမုဏ်(တွာမုဏ်- 오늘), တွာမုဏ်တွာအိမုဏ်(တွာမုဏ်-내일), တွာမုဏ်(တွာမုဏ်-모래)

မ္ဗိလ်မိတြ(ຍျီလ်မိတြ) 이나 တွာမုဏ်(တွာမုဏ်) 이후의 시간부사는 မ္ဗိလ်မုဏ်(ຍျီလ်မုဏ်), မ္ဗိလ်မုဏ်တွာအိမုဏ်(ຍျီလ်မုဏ်တွာအိမုဏ်) 등으로 그 이전의 시간을 표현하게 하며, တွာမုဏ်တွာအိမုဏ်(တွာမုဏ်တွာအိမုဏ်), တွာမုဏ်တွာအိမုဏ်တွာအိမုဏ်(တွာမုဏ်တွာအိမုဏ်တွာအိမုဏ်) 등으로 그 이후의 시간을 표현하게 한다.

2) **ကုဏ္ဏိယာနိဗ္ဗိယာနိဗ္ဗိယာ-빈도부사**

ရဝါ(ဂလ်-매) + တွာအိမုဏ်(တွာ-일)
ရဝါ(ဂလ်-매) + တွာမုဏ်(တွာ-주)
ရဝါ(ဂလ်-매) + အမုဏ်(အမုဏ်-일요일)
ရဝါ(ဂလ်-매) + ကာ(က-달)
ရဝါ(ဂလ်-매) + ဘိဏ်(ဘိဏ်-년)

<예문>

왜 당신은 캄보디아에 오셨나요?

(**헨**어**봐**이**반**찌**어** **네**악 **목** **쁘**로**떼**까**ប់**지**어**?, **ហេតុអ្វីបានជាអ្នកមកប្រទេសកម្ពុជា?**)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니?

(**헨**아**이** **네**악 **먼**(**엇**) **쥘**으 **쁘**레**아**예**수**?, **ហេតុអ្វីអ្នកមិន(អត់)ជឿព្រះយេស៊ូវ?**)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네**악**엇**또**안**쥘**으**쁘**레**아**예**수**다**오**이**싸**아**이?, **អ្នកអត់ទាន់ជឿព្រះយេស៊ូវដោយសារអី?**)

2) 장소에 관련된 의문부사 - 한국어와 영어의 어디와 where에 해당:

아이나 (**ឯ**ណ**어**디**에**)? **따**나 (**ទី**ណ**어**디**로**)?

<예문>

너는 어디에 있어요?

(**따**으 **네**악 **너**으**아**이나? **តើអ្នកនៅ(ឯ)ណ?**)

(**따**으 **너**으**나** **녕**? **តើនៅណាហ្នឹង?**)(구어체에서 흔히 사용)

너는 어디로 가니?

(**따**으 **네**악 **떠**우**떠**나? **តើអ្នកទៅទីណ?**)

따으 **네**악 **떠**으**따**나 **다**에? **តើអ្នកទៅតាណដែរ?**)

☞ ‘따으 네악 떠우떠나’를 구어체에서 주로 ‘따으 네악 떠으따나 다에’로 사용한다.

3) 시간과 관련된 의문부사 - 한국어와 영어의 언제와 when에 해당

빠일**나** (**ពេ**ល**ណ**-언제)?

웅갈 (**អង្គ**ាល-미래의 언제)?

빠웅**갈** (**ពី**អង្គ**ាល**-과거의 언제)?

땅빠**웅**갈 (**តាំងពី**ពេ**ល**ណ -언제부터)?

<예문>

너는 언제 밥을 먹었니?

(**따**네**악**반**남**빠**이**하**으**이**땅**빠**스**만**나**?(**빠**웅**갈**?)

(**តើអ្នក បានញ៉ាំបាយហើយតាំងពីស្ថានណ?**(**ពី**អង្គ**ាល**))

너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니?

(**따**네**악** 반 **쥘**으 **쁘**레**아**예**수** **땅**빠**빠**일**나**? (**빠**웅**갈**?),

តើអ្នកបានជឿព្រះយេស៊ូវតាំងពីពេលណ?(**ពី**អង្គ**ាល**?)

너는 언제 교회에 올 거니?

(따으 네악 능 목 쁘레아뷔히어 너으 빨나, **តើអ្នកនឹងមកព្រះវិហារនៅពេលណា (អង្គាល់?)**)

너는 언제쯤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니?

(따으 빨나 뜨으 네아 r록 고운 끄로몸 도싸앗 므네아 하으이 떠으 병까은
너으 꾸루싸 도 미언 소페아몽꼴다에,

តើពេលណាទើបអ្នករកកូនក្រមុំដ៏ស្អាតម្នាក់ហើយទៅបង្កើតនូវគ្រួសារដ៏មានសុភមង្គលដែរ?)

4) 방법과 관련된 의문부사 - 한국어와 영어의 어떻게와 how에 해당:

도잇머데잇 **ដូចម្តេច?** (어떻게)

양멧, 로비업멧 **យ៉ាងម៉េច?**, **របៀបម៉េច?** (어떻게)

트뷔도잇머데잇 **ធ្វើដូចម្តេច?** (어떻게 해서)

<예문>

어떻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니?

(트뷔도잇머데잇(반짜어) 네악 엇 **ჟო으 쁘레아**예수?,

ធ្វើដូចម្តេច(បានជា)អ្នកអត់ជឿព្រះយេស៊ូ?)

(햇도우머데잇반짜어 네악 엇 **ჟო으 쁘레아**예수?,

ហេតុដូចម្តេច បានជាអ្នកអត់ជឿព្រះយេស៊ូ?)

(네악 **얼** **ჟო으 쁘레아**예수 반양멧?, **អ្នកអត់ជឿព្រះយេស៊ូបានយ៉ាងម៉េច?**)

(네악 **얼** **ჟო으 쁘레아**예수 반도우머데잇? **អ្នកអត់ជឿព្រះយេស៊ូបានដូចម្តេច?**)

어떻게 캄보디아에 오셨나요?

(햇도우머데잇 반 네악 목 **쁘로떼감뿌지어?** **ហេតុដូចម្តេចបានអ្នកមកប្រទេសកម្ពុជា?**)

(네악 반 목 **쁘로떼감뿌지어** 르비업멧? **អ្នកបានមកប្រទេសកម្ពុជា របៀបម៉េច?**)

(도잇머데잇 반 짜어 네악 목 **쁘로떼감뿌지어?** **ដូចម្តេចបានជាអ្នកមកប្រទេសកម្ពុជា?**)

▷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법을 묻는 것과 관련된 부사 중 ‘트뷔도잇머데잇(ធ្វើដូចម្តេច)’은 주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5. 부사구 (**ក្រសាមប្រែក្រម** **កន្សោមពាក្យគុណកិរិយា**)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어는 an adverbial phrase, 한국어는 부사구로 칭해진다. 크마에 문법에도 영어와 한국어와 부사구와 같은 역할을 하

는 문법 사항들이 있다. 크마에 부사구는 부사+부사, 전치사 + 명사의 형태가 있다. 영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어 동사를 부사화해서 부사의 역할을 하게하고 한국어는 동사에 ‘~게’를 붙여 부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문법 내용이 있다. 그러나 크마에는 형용사부분에서 살펴봤듯이 한번 동사는 영원한 동사로 동사를 변형해서 부사 역할을 하는 어떤 방법도 없다.

1) ក្រណាតិយា(គុណកិរិយា-부사) + ក្រណាតិយា (គុណកិរិយា-부사)

ក្រណាតិយា(គុណកិរិយា-부사) + ក្រណាតិយា (គុណកិរិយា-부사)

A. 시간의 부사어구 - 큰 단위 + 작은 단위

어제 오후 두 시에 친구와 작별했다.
(크놈 반 바엑 크니어 찌어무이 머페아 너으마웅 빠 르씨엘 므썰멘
ខ្ញុំបានបែកគ្នាជាមួយ មិត្តភក្តិនៅម៉ោងពីរសៀលម្សិលមិញ។)

나는 내일 세 시에 교회로 갈 것이다.
(크놈 능 떠으 빠레아뷔히어너으통아이싸엑 마웅바이/
통아이싸엑마웅바이 크놈 능 떠으 빠레아뷔히어
ខ្ញុំនឹងទៅព្រះវិហារនៅថ្ងៃស្អែកម៉ោង៣/ ថ្ងៃស្អែកម៉ោង៣ខ្ញុំនឹងទៅព្រះវិហារ។)

B. 장소의 부사어구 - 좁은 장소 + 큰 장소

보레이트마이는 센속구 프놈펜 트마이에 있다.
(보레이피폼트마이 너으 송갸프놈펜트마이 칸센속 r리티니프놈펜,
បុរីពិភពថ្មីនៅសង្កាត់ភ្នំពេញថ្មី ខណ្ឌសែនសុខ រាជធានីភ្នំពេញ ។)
그녀는 프놈펜에 있는 딸꼭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특송을 했다.
(꼬안 프리영 찼리웅 뻬썰 너으 빠레아뷔히어므으스텔 너으크놈 칸톨곡 r리티니프놈펜,
គាត់ច្រៀងចំរៀងពិសេសនៅព្រះវិហារមួយស្ថិតនៅក្នុងខណ្ឌទួលគោក រាជធានីភ្នំពេញ។)

☞ 너으크놈칸톨곡(នៅក្នុងខណ្ឌទួលគោក) - 형용사구

너으'r리티니프놈펜'(នៅរាជធានីភ្នំពេញ)에서 r리티니(នៅរាជធានី)는 주로 주소를 쓸 때 Capital city 개념이며, 띠끄롱(ទីក្រុង)은 일반적 city를 나타내는 말이다.

C. 장소의 부사어구 + 시간의 부사어구 + 방법 또는 목적어 부사어구

그는 설교차 감뽕툼에 갔다.

(**꼬안** 떠으 감뽕툼 다음바이 터브까 아티바이 **쁘레아본뜰**

គាត់ទៅកំពង់ធំដើម្បីធ្វើការអធិប្បាយព្រះបន្ទូល។)

2) 전치사 + 명사로 이루어진 부사구

A. 방향(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

~ **앞에** - 너으묵 (**នៅមុខ**)

교회 앞에 차를 세우지 마세요.

(**ក្រុម ជ័រ រាន** 너으 묵 **쁘레아빛히어**, **កុំចតទ្វារនៅមុខព្រះវិហារ។**)

~ **뒤에** - 너으끄라오이 (**នៅ(ខាង)ក្រោយ**)

뒤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 본뜰떡 너으끄라오이, **មានបន្ទប់ទឹកនៅក្រោយ។**)

(너으캉끄라오이 미언 본뜰떡, **នៅខាងក្រោយមានបន្ទប់ទឹក។**)

~**위에** - 너으캉르 (**នៅខាងលើ**)

위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뜰떡너으캉르, **មានបន្ទប់ទឹកនៅខាងលើ។**)

(너으캉르미언본뜰떡, **នៅខាងលើមានបន្ទប់ទឹក**)

~**아래에** - 너으캉끄라옴 (**នៅខាងក្រោម**)

아래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뜰떡너으캉끄라옴, **មានបន្ទប់ទឹកនៅខាងក្រោម។**)

(너으캉끄라옴미언본뜰떡, **នៅខាងក្រោមមានបន្ទប់ទឹក។**)

~**밖에** - 너으캉끄라오 (**នៅខាងក្រៅ**)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 본뜰떡너으캉끄라오, **មានបន្ទប់ទឹកនៅខាងក្រៅ។**)

(너으캉끄라오미언본뜰떡, **នៅខាងក្រៅមានបន្ទប់ទឹក។**)

~안에 - **너으크농** (នៅ(ខាង)ក្នុង)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똥떡너으크농, មានបន្ទប់ទឹកនៅ(ខាង)ក្នុង។/ នៅខាងក្នុងមានបន្ទប់ទឹក។)

~가까이에 - **너으쩨** (នៅជិត)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똥떡너으쩨니, មានបន្ទប់ទឹកនៅជិតនេះ។)

(너으쩨니미언본똥떡, នៅជិតនេះមានបន្ទប់ទឹក។)

~향하여 - **츠뿌어h떠으** (ឆ្ពោះ ~ ទៅ)/ (សំដៅ ~ ទៅ)

똑바로 앞으로 가세요.

(쏟츠뿌어h뜨롱떠옥묵, សូមឆ្ពោះត្រង់ទៅមុខ។)

(쏟떠으묵뜨롱, សូមទៅមុខត្រង់។)

~따라 - **땨** (តាម)

집을 따라 국도가 있어요.

(미언플러으찌얼너으땨뜨페아르버크눔, មានផ្លូវជាតិនៅតាមផ្ទះរបស់ខ្ញុំ។)

~똑바로, 정면에 - **쩨묵** (ចំមុខ)

우리 집 정면에 국도가 있어요.

(미언플러으찌얼쩨묵뜨페아르버크눔, មានផ្លូវជាតិចំមុខផ្ទះរបស់ខ្ញុំ។)

~맞은 편 - **똥묵** (ទល់មុខ)

집 맞은편에 있는 국도가 있어요.

(미언플러으찌얼똥묵뜨페아르버크눔, មានផ្លូវជាតិទល់មុខផ្ទះរបស់ខ្ញុំ។)

~붙어있는 - **너으조압** (នៅជាប់)

집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미언빠누너으조압뜨페아르버크눔, មានប៉ានូនៅជាប់ផ្ទះរបស់ខ្ញុំ។)

~중간의 - 크농쩍나옴, 너으빠리웬 (ក្នុងចំណោម/ នៅបរិវេន)

우리 집 가운데 코코넛이 있어요.

(미언다음동너으크농쩍나옴(너으빠리웬)프떼아르버크눔,

មានដើមដូងនៅក្នុងចំណោម(នៅបរិវេន)ផ្ទះរបស់ខ្ញុំ។)

~주위의 - 줌윈 (ជុំវិញ)

우리 집 주위에 코코넛이 있어요.

(미언다음동줌윈프떼아크눔, មានដើមដូងជុំវិញផ្ទះខ្ញុំ។)

~에서 - 빼 (ពី)

우리 집에서 온 차가 있어요.

(미언란목빼쁘떼아크눔, មានឡានមកពីផ្ទះខ្ញុំ)

~떨어진 - 층아이빠 (ឆ្ងាយពី)

집에서 떨어진 농장이 있어요.

(미언점까층아이빠프떼아크눔, មានចំការឆ្ងាយពីផ្ទះខ្ញុំ។)

B. 시간을 표시하는 전치사(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는 첨가어)

~시에 - 너으+마옹(នៅម៉ោង)

두시에 데이트가 있어요.

(미언난주업너으마옹빼, មានណាត់ជួបនៅម៉ោង២)

~달에 - 너으+카에(នៅខែ)

이 달에 본프썸이 있어요.

(미언본프썸너으카에니, មានបុណ្យភ្ជុំនៅខែនេះ)

~년에 - 너으+츠남(នៅឆ្នាំ)

이 해에 월드컵이 열려요.

(미언발또안빼폭록너으츠남니, មានបាល់ទាត់ពិភពលោកនៅឆ្នាំនេះ)

~부터, ~로부터 - 땅빼(តាំងពី) + 과거 / 짚빼(ចាប់ពី) + 미래

이 축제는 2년 전부터 있었어요.

(빼티본니미언땅빼 빼츠남문, ពីជីបុណ្យនេះមានតាំងពី ពីរឆ្នាំមុន។)

내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짚빼통아이싸엑크눔짚타능کمہر릉r리언, ចាប់ពីថ្ងៃស្អែកខ្ញុំតាំងចិត្តថានឹងខំប្រឹងរៀន។)

2일부터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살라짚빼통아이띠빼, មានសិក្ខាសាលាចាប់ពីថ្ងៃទី២)

~후에 - 마웅(ម៉ោង)/카에(ខែ)/츠남(ឆ្នាំ)+끄라오이목(ក្រោយមក)

2년 후에 축제가 있어요.

(빼치남끄라오이목꺼미언빼티본, ២ឆ្នាំក្រោយមកក៏មានពីជីបុណ្យ។)

~지난 - 견롽폰떠으(កន្លងផុតទៅ)

재해가 있는 지 2년이 됐어요.

(모한뜨라이반견롽폰떠으빼츠남하으이, មហន្តរាយបានកន្លងផុតទៅពីរឆ្នាំហើយ)

~이래 - 땅빼(តាំងពី)

어릴 때부터의 상처자국이에요.

(쪼암르부허니미언땅빼고운크메잉, ជាស្នាមរបួសតាំងពីកូនក្មេងមក)

~전 - 문(មុន)

2년 전에 축제가 있었어요.

(빼츠남문틀럽미언빼티본, ២ឆ្នាំមុនធ្លាប់មានពីជីបុណ្យ។)

~까지, ~이를 때 까지 - r르훈덜(រហូតដល់)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쑤트뵤아오이 오빼싸마트피업 러훈덜 쫑끄라오이,

សូមធ្វើអោយអស់ពីសមត្ថភាពរហូតដល់ចុងក្រោយ។)

9월 2일까지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쌀라러헐덜통하이띠빠카에쁘람부언, **មានសិក្ខាសាលារហូតដល់ថ្ងៃទី២ខែ៩**)

~사이 - 전로(ចន្លោះ)

2일과 4일 사이에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쌀라너으전로통아이띠빠능통아이띠부언,

មានសិក្ខាសាលានៅចន្លោះថ្ងៃទី២ និងថ្ងៃទី៤)

~동안 - r로예아h뽀, 껌룽(엄룽)뽀(រយះពេល/ កំឡុង (អំឡុង) ពេល)

2일 동안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쌀라r로예아h뽀뽀통아이, **មានសិក្ខាសាលារយះពេលពីរថ្ងៃ**)

한국에 있는 동안 일을 했습니다.

(**ក្រុម(엄룽)뽀루어ㅎ너으꼬레크눔반트뽀까, កំឡុង(អំឡុង)ពេលរស់នៅក្នុងខ្ញុំបានធ្វើការ**)

C. 그 외 전치사 + 명사가 부사구를 이루는 경우

~때문에(왜냐하면) - 빠뿌루어h따에(ពីព្រោះតែ) 다오이싸따에(ដោយសារតែ)

나는 크마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빠뿌루어h따에피어싸 크마에 크눔 뽀찌어 빠박나,

ពីព្រោះតែភាសាខ្មែរខ្ញុំពិតជាពិបាកណាស់។

ក្រុម ប៉ាបកាង ប៉ាបប្រុរេអ ប៊ិច្ឆា ក្រម៉ា, ខ្ញុំពិបាកណាស់ព្រោះភាសាខ្មែរ។)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ក្រុមបាប្តូរេសេក្រីស្តដោយសារតែព្រះយេស៊ូវ។**)

ខ្ញុំបានទទួលសេចក្តីសង្គ្រោះដោយសារតែព្រះយេស៊ូវ។

~통과하여 - 출롱깁(ឆ្លងកាត់), 뽀r로예아h(តាមរយៈ)

감뽀뽀뽀를 통과하여 씨엠립에 갈 수 있어요.

(**នេា អាយ៉ ចេរ៉ កាយ ឆីឡេម ដាយ ចេរ៉ កាយ កាយ កាយ,**

អ្នកអាចទៅខេត្តសៀមរាបដោយឆ្លងកាត់ខេត្តកំពង់ធំ។)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영 아읏 떠으 목바응꼐 ٱٱ레아찌어머짜 ٱٱr로예아h로헐ٱٱ레아예수,

យើងអាចទៅមុខបាង្គលព្រះជាម្ចាស់តាមរយៈលោហិតព្រះយេស៊ូវ)

~와 함께 - 찌어무이(ជាមួយ)

우리는 캄보디아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할 거예요.
(크눔 능 떠으 달레잉 찌어무이 ٱٱ어막(머페아) 쥘찌얼 크마에,

ខ្ញុំនឹងទៅដើរលេងជាមួយពួកម៉ាក់(មិត្តភក្តិ)ជនជាតិខ្មែរ។)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거예요.

(영능r루엇라응원 찌어무이 웅ٱٱ레아예수, យើងនឹងរស់ឡើងវិញជាមួយអង្គព្រះយេស៊ូវ។)

~에 의해, ~로 인해, ~로 - 다오이(ដោយ) / 다오이싸따에(ដោយសារតែ) / ٱٱr로야h(តាមរយៈ)

오토바이를 타고 도서관에 갔어요.

(크눔 반 떠으 본나라이 다오이 찌모토, ខ្ញុំបានទៅបណ្ណាល័យដោយជិះម៉ូតូ)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요.
(크눔 반 ٱٱ뚜얼 까올또 ٱٱ 다오이싸따에 로헐 ٱٱ레아예수그랏,

ខ្ញុំបានទទួលការអត់ទោសបាប ដោយសារតែលោហិតព្រះយេស៊ូវគ្រីស្ទ។)

사고로 인해 차가 많이 막혔어요.

(란미언까꼬쓰떼아h클랑 ٱٱ루h따에 미언 꾸루h트나쵸라쵸,

ឡានមានការកកស្ទះខ្លាំងព្រោះតែមានគ្រោះថ្នាក់ចរាចរណ៍។)

6. 부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컬어 부사절이라 한다.

1) 시간(순서)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사 + 주어+동사 - 시간 부사절

A. ~할 때 - ណេឡេដាឡេ, ណេឡេបេឡេរីឡេដាឡេ, ណេឡេក្រីឡេដាឡេ

우리가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 프놈펜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ឡេដាឡេ ឡេ មុក ឡេ ឡេឡេឡេឡេឡេឡេ ឡេឡេ ណេឡេ 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
ពេលដែលយើងមកដល់ប្រទេសកម្ពុជា ពេលនោះនៅព្រលានយន្តហោះគឺមានភ្លៀងធ្លា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응답하십니다.
(ណេឡេដាឡេ ឡេឡេឡេឡេ ណេឡេ ឡេឡេឡេឡេឡេឡេ ឡេឡេឡេឡេឡេឡេឡេឡេឡេ,
នៅពេលដែលយើងអធិស្ឋាន នោះព្រះយេស៊ូវនឹងឆ្លើយតប។)

B. ~이래로 - ក្រាឡេឡេ(ក្រោយពី)

캄보디아에 온 이래로 줄 곧 프놈펜 왕립 학교에 다니고 있다.
(ក្រាឡេឡេឡេ ក្រុម មុក ឡេឡេឡេឡេឡេឡេ ក្រុមឡេ 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ឡេ,
ក្រោយពីខ្ញុំមកប្រទេសកម្ពុជា ខ្ញុំបានទៅរៀន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 ។)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다.
(ឡេ,
វាមានរយៈពេល២ពាន់ឆ្នាំហើយ ក្រោយពីព្រះយេស៊ូវបានស្កត់នៅលើឈើឆ្កាង។)

C. ~까지 - រេឡេឡេ(រហូតដល់)

내가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기를 바란다.
(ក្រុម ឡេ ឡេឡេឡេ ឡេឡេ ឡេ ឡេ ក្រុម រេឡេឡេ ក្រុម ឡេឡេឡេ មុកឡេ,
ខ្ញុំចង់អោយអ្នករង់ចាំខ្ញុំរហូតដល់ខ្ញុំត្រលប់មកវិញ ។)

D. ~이르러 - រេឡេឡេ(លុះដល់)

오후에 다다라서 우리는 크마에 숙제를 마쳤다.
(រេឡេឡេ ឡេឡេឡេឡេឡេឡេ ឡេ ឡេ ឡេឡេ កា ឡេឡេ ឡេឡេ ឡេឡេឡេ ក្រុមឡេ,
លុះដល់ថ្ងៃសៀលយើងបានបញ្ចប់ការធ្វើលំហាត់ភាសាខ្មែរ។)
마지막 날이 이르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រេឡេឡេ ឡេ,
លុះដល់ថ្ងៃចុងក្រោយព្រះយេស៊ូវនឹងយាងមកផែនដីនេះម្តងទៀត)

E. ~지나서, ~후에 - 本도압빠(បន្ទាប់ពី), ក្រោយពី

그가 온 후에 그의 가족들도 뒤이어 왔다.

(本도압빠(ក្រោយពី) គោរ មុខ ពេល ផ្សេង ក្រុមកុរុស្តា គោរ គោរ មុខ ពេល ដោយ,

បន្ទាប់ពី(ក្រោយពី)គាត់មកដល់ផ្ទះក្រុមគ្រួសារគាត់ក៏មកដល់ដែរ។)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本도압빠 ប្រេអាយេស៊ូ មេ តេរ ឥតាបារ៉ូមុខអាយ ប្រេអាយ៉ូនីយ៉ូនប៊ូរីស្ត កេ យ៉ូមុខ,

បន្ទាប់ពីព្រះយេស៊ូយាងទៅស្ថានបរមសុខហើយ 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ក៏យាងមក។)

F. ~그 다음에 - 本도압목(បន្ទាប់មក)

그의 가족들이 오고 나서 그가 왔다.

(ក្រុមកុរុស្តាគោរ បា មុខ ប្រេអាយមុខ គោរ កេ បា មុខពេល,

ក្រុមគ្រួសារគាត់បានមក, បន្ទាប់មកគាត់ក៏បានមកដល់)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후 성령의 강림사건이 있었습니다.

(ប្រេអាយេស៊ូ មីយ៉ូ ប្រេអាយ៉ូន រត្តាឡេយ៉ូ អាយ ប្រេអាយមុខ កេ មីយ៉ូវ៉ាត្រីយ៉ូ ណេ ប្រេអាយ៉ូនីយ៉ូនប៊ូរីស្ត,

ព្រះយេស៊ូមានព្រះជន្មរស់ឡើងវិញហើយ បន្ទាប់មកក៏មានវត្តមាននៃ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

G. ~바로 그 때(갑자기) - រត្តម៉េឺត្រូ(រំពេចនោះ), ផ្រីយ៉ូន(ភ្លាមៗនោះ), ផ្រីយ៉ូន(ភ្លាម)

내가 그를 본 바로 그 순간 그는 나를 안았다.

(គ្រូម បា ជ្រូម គោរ អាយ រត្តម៉េឺត្រូ គោរ កេ អាយ គ្រូម,

ខ្ញុំបានជួបគាត់ហើយរំពេចនោះគាត់ក៏អាបខ្ញុំ។)

(ជ្រូម គោរ ផ្រីយ៉ូន គោរ កេ អាយ គ្រូម, ជួបគាត់ភ្លាមគាត់ក៏អាបខ្ញុំ។)

예수님이 돌아보실 바로 그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ប្រេអាយេស៊ូម៉ាមេឡីគោរ រត្តម៉េឺត្រូ គោរ បា ប្រេអាយ៉ូន ប្រេអាយ៉ូនីយ៉ូនប៊ូរីស្ត,

ព្រះយេស៊ូបែរមើលគាត់ រំពេចនោះគាត់បានជាសះស្បើយ)

H. ~그 때 이후로 - ធាម៉េឺត្រូ(តាំងពេលនោះ)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뜨하**바이 **쁘레**아예수 반뜨뜨얼롱뚝뚝박 **빠**어**쁘**로맛 능 **까**멸응이예이 **끄**룹양
꺼다오이 **꺼**쁘레아예수 먼떠뚝능**뿌**억**꺼**라으이,

ទោះបីព្រះយេស៊ូវបានទទួលរងទុក្ខលំបាក
ពាក្យប្រមាថនិងការមើលងាយគ្រប់យ៉ាងក៏ដោយ ក៏ព្រះយេស៊ូវមិនតទល់និងពួកគេឡើយ)

3) 원인(이유) 부사절 = 원인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원인과 이유를 이끄는 종속접속사(~ 때문에, 로 인해)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다. **뿌루**h(**ព្រោះ**), **빠**뿌루h(**ពីព្រោះ**) 등이 원인과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라 할 수 있다.

그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를 매 번 본다
(**빠**뿌루h **꼬**안 **죌**쩨 **발**또안 **도**읏츠네h **꼬**안 **덜** **까**쁘로꾸언 **월**(드)킵 **r**로알룩,

ពីព្រោះគាត់ចូលចិត្តបាល់ទាត់ដូច្នេះគាត់មើលការប្រកួតវីលខាប់រាល់លើ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빠**뿌루 h **쁘**레아예수레아h**병**쁘레아**죌**쩨**랍**영 **도**읏츠네h**하**으이 **쁘**레아**찌**어**머**짜**반**오**또**덜 **뿌**억영,
ពីព្រោះព្រះយេស៊ូវលះបង់ព្រះជន្មសំរាប់យើង ដូច្នេះហើយព្រះជាម្ចាស់បានអត់ទោសដល់ពួកយើង។)

4) 가정부사절 = 가정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

쁘로썬바으(**ប្រសិនបើ**), **바**으(**បើ**) 등이 가정절(~라면, ~한다면)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이고 이러한 종속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부사절이 된다.

A. ~라면, ~한다면 - **쁘로**썬바으(**ប្រសិនបើ**), **바**으(**បើ**)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쁘**로썬바으 **크**놈 **찌**어 **싼**즐랍 **크**놈 능 **허**h**하**으 **르** 메이 ,

ប្រសិនបើខ្ញុំជាសត្វស្លាប ខ្ញុំនឹងហោះហើរលើមេឃ)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쁘**로썬바으 영 **또**뜨얼즈 **으**르**쁘**레아예수 **누**h 영 **능**또뜨얼반**쎄**끄**데**이**쑹**꾸루h,

ប្រសិនបើយើងទទួលជឿលើព្រះយេស៊ូវ នោះយើងនឹងទទួលបានសេចក្តីសង្គ្រោះ)

Khmer writing

5강

접속사

(초노압, ឆ្មោប)

접속사의 정의
접속사의 위치
접속사의 종류

5강 접속사 (츠노압, ហ្គ្រីប)

1. 접속사의 정의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혹은 구와 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 혹은 절과 절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접속사는 짧은 절의 문장의 긴 문장으로, 절과 구를 합치거나 구를 절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접속사의 위치

접속사는 서로 연결 지으려는 단어와 단어, 단어군과 단어군, 절과 절 사이 혹은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는 볼 수 없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3. 접속사의 종류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접속사는 크게 문법적으로 보아 대등한 단어, 구, 절 등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와 문법적으로 볼 때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문장 안에서 접속사로 인해 주와 종속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인 종속접속사가 있다. 크마에 문법에도 이와 같은 접속사가 있는데 등위접속사를 츠노압쥬, 종속접속사를 츠노압클리어라 부른다.

1) 대등접속사(츠노압쥬)

영어의 and, but, or, however, therefore, otherwise, so, for 등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말한다. 크마에 문법에는 능(នឹង), 본파에(ប៉ុន្តែ), 르(ឬ), 썸트랍(ស្រាប់), 너으라이(នៅឡើយ), 도으치네(ដូច្នេះ), (리)아이((រី)ឯ), 하으이(ហើយ), 하으이능(ហើយនឹង)

A. ~ 그리고 : ~ 능(នឹង)/ 하으이(ហើយ)

너와 나는 한국인이다.

(크놈 능 네악 찌어 준찌어꼬레, ខ្ញុំនឹងអ្នកជាជនជាតិកូរ៉េ)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능(នឹង), 하으이(ហើយ), 하으이능(ហើយនឹង))

(쁘레아찌어머짜 능(하으이, 하으이능) 쁘레아예수끄릿 찌어 쁘레아따에무이)

ព្រះជាម្ចាស់នឹងព្រះយេស៊ូវគ្រីស្ទជាព្រះតែមួយ

그는 예쁘고 공부도 잘 한다.

(**ក្រោយ គ្រាន់ អ្នក ក៏ រីក រាយ ក្នុង ការ បាន គាត់ ស្អាត ហើយ ក៏ រៀន ពូកែ ដែរ។**)

B. ~ 그러나 : **ប៉ុន្តែ, **ប៉ុន្តែ****

갑보디아 날씨가 덥지만 나는 참을 수 있다.

(**អាស៊ី ឥណ្ឌូ ថ្ងៃ ក្ដៅ ប៉ុន្តែ ខ្ញុំ អាច តស៊ូ ទ្រាំ បាន**)

주(주)=뜨로압(주)=주뜨로압(주) : គ្រាន់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ប្រែ យេស៊ូវ បាន សោយ ទីរង់ តែ ទ្រង់ មាន ព្រះ ជន្ម រស់ ឡើង វិញ**)

그 혹은 그의 가족은 가끔 음악회에 가곤했다.

(**ក្រុម គ្រួសារ គាត់ ទៅ មើល ការ ប្រគុំ តន្ត្រី ម្តង មួយ កាល**)

예수님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ប្រែ យេស៊ូវ ឬ ព្រះ ជា ម្ចាស់ គឺ ជា ស្ដេច នៃ យើង ខ្ញុំ**)

그 혹은 그의 가족은 가끔 음악회에 가곤했다.

(**ក្រុម គ្រួសារ គាត់ ទៅ មើល ការ ប្រគុំ តន្ត្រី ម្តង មួយ កាល**)

예수님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ប្រែ យេស៊ូវ ឬ ព្រះ ជា ម្ចាស់ គឺ ជា ស្ដេច នៃ យើង ខ្ញុំ**)

C. ~ 반면에 : **រីឯ**

그는 공부를 잘 하는 반면에 그의 여자 친구는 별로다.

(**ក្រោយ គ្រាន់ អ្នក ក៏ រីក រាយ ក្នុង ការ បាន គាត់ ស្អាត ហើយ ក៏ រៀន ពូកែ ដែរ។**)

គាត់ រៀន ពូកែ តែ សង្សារ របស់ គាត់ មិន សូវ ពូកែ ទេ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ប្រែ យេស៊ូវ ក៏ ជា ព្រះ ខាង ឯ សាច់ ឈាម (រឺ) ឯ ព្រះ វិញ្ញាណ បរិសុទ្ធ គឺ ជា ព្រះ ដែល គង់ ជា មួយ យើង ខ្ញុំ**)

ព្រះ យេស៊ូវ គឺ ជា ព្រះ ខាង ឯ សាច់ ឈាម (រឺ) ឯ ព្រះ វិញ្ញាណ បរិសុទ្ធ គឺ ជា ព្រះ ដែល គង់ ជា មួយ យើង ខ្ញុំ

D. 그래서, ~그러므로 : 도으치네(ដូច្នេះ), 도이치네하으이(ដូច្នេះហើយ), 헨니하으이(ហេតុនេះហើយ)

햇빛이 너무 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썬크림을 바른다.

(뿐느쁘레아아뜰 끄다으 클랑 도으츠네 하으이 크눔 꺼 리업 레 까빠어 폼다으통아이,
ព្រះអាទិត្យក្តៅខ្លាំងដូច្នេះហើយខ្ញុំក៏លាបឡេការពារកំដៅថ្ងៃ។)

우리는 캄보디아백성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그러므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었다.

(뿌영 쓸로란 쁘로찌어쁘로앗크마에 도으츠네하으아 여응 꺼반 클라이찌어 빠이씩각준 썸르랍
쁘로떼감뿌찌어,

ពួកយើងស្រលាញ់ប្រជាពលរដ្ឋខ្មែរដូច្នេះហើយ យើងក៏បានក្លាយជាបេសកជន សំរាប់ប្រទេសកម្ពុជា។)

2) 종속접속사

영어와 한국어문법에서 종속접속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명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데, 크마에 문법도 이와 같으며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존재한다.

A.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크마에 문법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타(타)’가 있으며 유일하다. 타는 영어의 that와 쓰임이 비슷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꼬안 르 타 송싸꼬안 반 니에이 타 쓰롤란 꼬안,

គាត់លឺថាសង្ឃារគាត់បាន និយាយថាស្រលាញ់គាត់។)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쁘레아예수 미언 쁘레아본돌 타 크눔찌어 플러으, 찌어 세끄데이뻔 하으이 찌어 지뵐,

ព្រះយេស៊ូវមានព្រះបន្ទូលថា ខ្ញុំជាផ្លូវ ជាសេចក្តីពិត ហើយជាជីវិត។)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했다.

(록뵐 쁘로까타 쁘레아예수 찌어 쁘레아송꾸루h 르버 영,

លោកប៉ូលប្រកាសថា ព្រះយេស៊ូជាព្រះសង្គ្រោះរបស់យើង។)

그 외의 예들

르타(리타), 꺄타(키티타), 당타(띵탕타), 쑤어타(쑤어타), 니에이타(니야야타), 송컴타(송쑤뽀뽀타) 등

B.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 부사편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부사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Khmer writing

6강

명사와 대명사

명사(니엄, នាម)와 대명사(쓔니엄, សព្វនាម)

6강 명사(니엄, 𑜁𑜪)와 대명사(쑤니엄, 𑜇𑜨𑜆𑜫𑜁𑜪)

1. 명사 (니엄, 𑜁𑜪)

영어 문법에서 명사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관사의 문제든가, 명사의 성, 그리고 단수와 복수의 문제 등 살펴할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문법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고 문장구조의 파악을 통해 올바른 문장을 쓰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법을 위한 문법은 정말 필요가 없다. 문법의 부분에 있어 특히 영어는 명사부분은 거의 문법을 위한 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명사의 문법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의사전달에 큰 왜곡이 생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크마에 명사 부분을 살펴보면 크마에 명사 부분은 영어의 명사 부분과 비교해 될 때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단순해 짐을 알 수 있다. 우선 크마에 명사의 특징을 영어의 명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1) 크마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하는 데 영어문법에서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과 동일하다.
- 2) 크마에 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3) 크마에 명사는 성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
- 4) 크마에 명사는 관사의 문제가 없다.
- 5) 크마에 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의 성질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 6) 크마에 명사는 영어와 같이 동사를 명사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동사 앞에 **까(𑜁𑜪)**, **쑤크테이(𑜇𑜨𑜆𑜫𑜁𑜪)**, **피업(𑜇𑜨𑜆𑜫)**을 붙인다.

2. 대명사 (쑤니엄, 𑜇𑜨𑜆𑜫𑜁𑜪)

< 인 칭 대 명 사 >

- 1) 크마에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영어의 대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과 동일하다.
- 2) 영어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1인칭단복수, 2인칭단복수, 3인칭단복수의 인칭대명사가 있으며 영어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 3) 대명사가 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 4) 관계대명사로 **다엘(𑜇𑜨𑜆𑜫)**이 유일하다.

	단수	복수
1인칭	안 (𑜁𑜪) 크놈 (𑜇𑜨) 똥봉곰 (𑜇𑜨𑜆𑜫𑜁𑜪) 크놈받 (𑜇𑜨𑜆𑜫𑜁𑜪)	크니어영 (𑜇𑜨𑜆𑜫𑜁𑜪) 영크놈 (𑜇𑜨𑜆𑜫𑜁𑜪) 뿌어영 (𑜇𑜨𑜆𑜫𑜁𑜪) 뿌어께 (𑜇𑜨𑜆𑜫𑜁𑜪)
2인칭	아잉 (𑜇𑜨) 네악 (𑜇𑜨)	오록 (𑜇𑜨𑜆𑜫) 오네악 (𑜇𑜨𑜆𑜫) 뿌어아잉 (𑜇𑜨𑜆𑜫𑜁𑜪) 뿌어네악 (𑜇𑜨𑜆𑜫𑜁𑜪)
3인칭	꼬안 (𑜇𑜨) 깨 (𑜇𑜨) 뷔어 (𑜇𑜨) 니영 (𑜇𑜨)	뿌어뷔어 (𑜇𑜨𑜆𑜫) 뿌어니영 (𑜇𑜨𑜆𑜫𑜁𑜪) 뿌어꼬안 (𑜇𑜨𑜆𑜫𑜁𑜪) 뿌어께 (𑜇𑜨𑜆𑜫𑜁𑜪)

Khmer writing

7강

문장

(**쁘로옥**, ស្រ្តោក/ឃ្លា)

크마에 **클리어**와 러봐의 차이

문장의 형식(**바엠편**이라봐)

문장의 종류

문장의 태(voice)

절(**클리어** **ឃ្លា**)

7장 문장 (ឃ្លា, ស្រ្តោក/ឃ្លា)

1. 크마에 클리어와 러봐의 차이

- 1) 클리어(ឃ្លា)와 러봐(ស្រ្តោក)는 영어의 clause와 sentence에 해당하며 한국어로는 절과 문장으로 번역될 수 있다.
- 2) 클리어는 주부와 술부를 가질 때도 있고 가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러봐는 주부와 술부를 하나 이상 반드시 가진다.
- 3) 문장이 주절과 종속절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 때, 주부와 술부를 하나만 가질 때 클리어와 러봐의 형식은 동일하지만, 클리어라 부르지 않고 러봐라 부른다.

▷하지만 크마에 문법책들은 이런 러봐와 클리어의 구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문장의 형식(바엠펬이러봐)

1) 서술문(러봐반제약)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의 맨 끝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서술문이라고 하는데 크마에 문법에서는 러봐반제약이라 불린다. 서술문은 긍정적인 서술문과 부정적이 서술문으로 나뉜다.

A. 긍정적인 서술문

그의 인생은 예술이다.

រក្សាទុករចនាសម្ព័ន្ធនៃការរៀនសូត្ររបស់គាត់គឺសិល្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ប្រាកដថា យើងគួរតែប្រើប្រាស់ចិត្តរបស់យើងដើម្បីស្វែងរកយេស៊ូវ។

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ត្រូវតែស្រាវជ្រាវយេស៊ូវដើម្បីស្វែងរកយេស៊ូវ។

B. 부정적인 서술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ការរៀនភាសាបរទេសមិន(អត់)ស្រួលទេ។

4) 감탄문

한국어와 영어 문법에서는 감탄사(interjection, **우피언쑤**)가 포함된 문장을 감탄문이라 부른다. 크마에 문법에서는 감탄문을 표현하는 문법 단어가 없다. 굳이 표현한다면 리봐우피언쑤 정도가 될 듯 하다.

3. 문장의 종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은 문장의 5형식을 따르며 모든 언어에 관계없이 문장은 주어부(주부)와 술부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만 뿐만 아니라 크마에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크마에는 주부를 **견싸옴쁘로띠언**, 술부를 **견싸옴게리야**라 칭한다.

1) 단문(simple sentence, **러봐돌** **လျှးဂေါလ**)

: 주어부 하나와 술부 하나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

2) 복문(complex sentence, **러봐프쌔** **လျှးၼုံ**)

: 주어부와 술부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주절 혹은 독립절(independent clause)과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말한다. 이러한 절 사이의 관계는 종속접속사(**치노압클리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접속사와 연결된 문장, 혹은 접속사 뒤에 나오는 문장은 종속절(클리어찌봉)이 되고 종속절 아닌 문장은 주절(**클리어놉**)이 된다. 그 외는 종속접속사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중문(compound sentence, **러봐끄롬** **လျှးၼုမ်**)

: 두 개 이상의 단문이 등위접속사(**치노압종** **လျှးပံတံၼ်**)에 의해 연결되어 형성된 문장을 말한다.

4) 혼합문(compound-complex sentence, **러봐퍼쌔끄롬** **လျှးၼုံၼုမ်**)

: 복문과 중문이 혼합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문장을 말한다.

4. 문장의 태(voice)

: 문장의 5형식 가운데 3형식 이상의 문장, 즉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설정에 따라 문장의 태가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데 이 두 형태를 각각 능동태와 수동태라 부른다. 크마에 문법에도 문장의 태에 관한 내용이 있다. 크마에 문법에서는 능동태를 **러봐깁** **လျှးကံၼ်**, 수동태를 **러봐감** **လျှးကံၼ်**으로 칭한다.

1) 능동태(**러봐깁** **လျှးကံၼ်**)

주어(뻔로티언 **ប្រធាន**)가 무엇을 하고 목적어(감브본 **កម្មបទ**)가 그 주어의 행동의 영향을 받는 문장을 말한다.

2) 수동태 (러봐감 **ល្បះកម្ម**)

목적어가 무엇을 하고 주어가 목적어의 행동의 영향을 받는 문장을 말한다. 크마에 문장에서 수동태는 '다오이(ដោយ)'가 포함된 수동태 문장과 '다오이(ដោយ)'가 포함되지 않은 수동태 문장이 있다. 그러나 크마에 문법에서 수동태는 비교적 잘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영어가 물주구문과 인주어구문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처럼 이 둘 사이의 구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4형식, 5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있는 반면에 크마에 문법에서는 수동태가 3형식의 문장에만 한정된다.

레아는 미니어를 그리워한다. (능동태)

레아 **លើក** 미니어, **ល្ប់** **នឹក** **មិនា**

미니어는 레아의 그리움의 대상이다. (수동태)

미니어 **ព្រម** **រាប់** **លើក** **នឹក** **ដោយ** **លើក**

미니어 **ព្រម** **រាប់** **លើក** **នឹ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ប្រធាន **រាប់** **រាប់** **យើង**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យើង **រាប់** **រាប់** **ដោយ** **ប្រធាន**

យើង **រាប់** **រាប់** **ដោយ** **ប្រធាន**

យើង **រាប់** **រាប់** **ដោយ** **ប្រធាន**

<능동태 : 러봐감 **ល្បះកាត់**>

ប្រធាន + **រាប់** **រាប់** + **កាត់** **កាត់**

កាត់ **កាត់** + **រាប់** **រាប់** + **ប្រធាន** + **រាប់** **រាប់**

<수동태 : 러봐감 **ល្បះកម្ម**>

កាត់ **កាត់** + **រាប់** **រាប់** + **រាប់** **រាប់** + **ដោយ** + **ប្រធាន**

5. 구 (phrase)

단어의 나열(검룡뻔어)을 칭하는 문법 용어로 주어나 혹은 동사가 포함되지 않지 않아 문법적으로 문장 혹은 절로 불리워 질 수 없는 단어의 나열들을 일컫는다. 구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가 있다. 이미 부사와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파트에서 구의 문법 내용까지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명사구와 동사구만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전치사구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구와 부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는 따로 전치사구로 나뉘어 살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치사구를 부사구와 형용사구 묶어 살펴보았다.

1) 명사구 (곶싸옴니엄, កន្លែងនាម)

명사가 여러 개 모여 문장에서 주어, 보어 혹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나열을 일컫는다.

우리 교회의 창문 색깔은 밝은 푸른색이다.

ប្រាសាទបុរេប្រវត្តិសាស្ត្រ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푸른 창문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ឲ្យ មីន រើស កំប៉ុត ចូល ទៅ ដាក់ ក្នុង កញ្ចប់ ហើយ ភ្ជួរ ជិត វា ឱ្យ បាន ជិត ណាស់ បើ គេ មិន ធ្វើ ដូច្នោះ ទេ វានឹង ខូច បាត់ បង់ ទៅ អស់ ដែរ។

우리 교회의 자존심과 역사는 푸른 창문이다.

ប្រវត្តិសាស្ត្រ និងមោទនភាពនៃព្រះវិហារយើងជាបង្អួចពណ៌ខៀវខ្ចី។

2) 동사구 (꼰싸옴게리야, កន្សោមកិរិយា)

동사가 여러 개 모여 문장에서 서술어(동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단열을 일컫는다.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는 없고 크마에 문법에만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가서 진찰받기를 원하십니다.

[illegible]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illegible]

6. 절 (클리어, 휴)

절은 두 가지의 절로 나뉘어지는 데 독립절 혹은 주절(**클리어쩌봉** **ယူတျံၣ်**, independent clause) 과 종속절(**클리어놈** **ယူၤတၢ်ပံၣ်**, dependent clause)이 그것이다. 종속절은 그 역할에 따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크마에 문법에도 종속절은 역할(**목웅이어** **မုၢ်ဒၣ်ၤ**)에 따라 이와 같이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종속절에 대해서는 명사와 부사 그리고 형용사를 다룬 부분을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Khmer writing

8강

전치사

(트노압, ព្រះ)

전치사의 정의
전치사로 쓰이는 크마에 단어
전치사의 종류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활용

8강 전치사 (트노압, ផ្ដាប់)

1. 전치사의 정의

크마에 문법에도 영어 문법에서처럼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어 중에 전치사 역할을 하는 단어를 ‘명사 혹은 대명사가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명사 그리고 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전치사는 항상 방향 장소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전치사로 쓰이는 크마에 단어

벤 បិទ (닫다 close)

끄바에 ក្បែរ (가까운 near by)

크농 ក្នុង (에, in)

너으 នៅ (~에, at)

엄뻔 អំពី (~에 대한 about)

찌어무이 ជាមួយ (~와 함께 with)

네이따م នៃតាម (follow)

용따м យោងតាម (~에 따르면 according to)

쁘로춤녕 ប្រឈមនឹង (~에 직면하여 face with, be confronted with, encounter)

☞ 신문이나 잡지 헤드라인에 **쁘로춤녕** (ប្រឈមនឹង) 앞에 “**까**(ការ), **쁘나하**(បញ្ហា)” 와 같은 단어를 붙여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쩍누어다오이 ជំនួសដោយ (~로 교체 replace with),

다오이 크미언 ដោយគ្មាន/ឥត (~없이, without)

다오이짜 ដោយសារ/ព្រោះតែ (왜냐하면, because)

르 លើ (위에 on)

끄라움 ក្រោម (아래에 under)

3. 전치사의 종류

1)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 (트노악견랑엥 ផ្ដាប់កន្លែង)

ក្នុង ក្នុង, ក្នុង ក្នុង (~안에 In, into)
 លើ, លើ លើ (~위에 On, over)
 ក្រៅ, ក្រៅ ក្រៅ (~밖 Out of)
 ក្រោយ ក្រោយ (다음 next)
 បន្ទាប់ (다음 next)
 បន្ទាប់ពី (~후에 after)
 ក្រោយ ក្រោយ (뒤쪽 rear)
 ក្រោម ក្រោម (아래에 below)
 នៅ (~에 at)
 ឆ្លងកាត់, ឆ្លងកាត់ (~을 통해 through)
 ត្រង់, ត្រង់ (똑바로 straight)
 មុខ មុខ (앞쪽 front)
 ផ្ទុយ ផ្ទុយ (반대 opposite)
 មុខ មុខ (반대편에서 on the other side)
 ក្នុងចំណោម / ក្នុងចំណោម / នៅចន្លោះ (~의 사이에 among)
 ជុំវិញ (약~ around)
 តាម តាម (~을 따라 along)
 រវាង (~사이 between)
 ជាមួយ, ជាមួយ (~와 함께 with)

2) ពេលវេលា និង ពាក់ព័ន្ធ ពាក្យ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트노약갈 ធ្លាប់កាល))

នៅ (~에 at)
 កាលពីមុន (전에 ago)
 ឆ្នាំក្រោយ (내년 next year)
 ឆ្នាំមុន (작년 last year)
 ចាប់ពី (~에서부터 from)
 រហូតដល់ (~까지 up to)
 ក្នុងរវាង (~사이 in between)

3) ពាក្យស្រដៀង មានន័យដូចគ្នា ពាក្យ - ង (នឹង), ឆ្នាំ (ឆ្នាំ), ដូចជា (ដូចជា)

4. 전치사의 목적어 (කම්බෝර්බේර්තොප් ක්ෂුප්පස්සාථු)

문장에서 전치사 바로 뒤 혹은 오른쪽에 있는 명사 혹은 대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한다.

5. 전치사의 활용

전치사는 전치사 부분만 따로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 대명사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핵심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자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혹은 대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화 되거나 혹은 부사화하여 형용사와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치사의 활용부분은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Khmer writing

9강

중요한 크마에 문법 단어

1. 오 (អស់)
2. 나 (ណា)
3. 아오이 (ទុយ, អាយ, ជួន)
4. 틀로압 (ធុលាប់)
5. 미언 (មាន)
6. 반 (ហាន)
7. 트러으 (ត្រូវ)

9강

1

1.

당

ਖ

모

마

2.

자

三

品

어

3.

누

II

누

오

2

—

1.

어디에 가니?

떠(아)나? **ទៅ(ង)ណា?** / 떠(나)는? **ទៅណាហ្នឹង?** / 떠(나)다엘? **ទៅណាដែរ?**

어딘가로 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니?

아일러니 네악 **ក្របីរ៉ាង** 란 떠(나) **ឥលូវនេះអ្នកកំពុងជិះឡានទៅណា?**

ក្របីរ៉ាង 란 떠(나) **다엘 កំពុងជិះឡានទៅណាដែរ?**

어느 장소에 가니?

네악 떠(나) **견라** 엘? **អ្នកទៅកន្លែងណា?**

어디 가고 싶니?

네악 **좋** 떠(나) **언(다)에?** **អ្នកចង់ទៅណាអត់?(ដែរ?)**

2) 어디든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정 떠(나) **크**놈 **능** **준** (네악) **떠(나) ចង់ទៅណា ខ្ញុំនឹងជូន(អ្នក)ទៅ។**

어디든 갈래.

떠(나)꺼반다에 **ទៅណាក៏បានដែរ។**

어느 장소에 가고 싶든 나에게 말만 해 주세요 저는 시간이 있어요.

정 떠(나) **빠**라**크**놈**마**옥 **크**놈**똥**네 **ចង់ទៅណាប្រាប់ខ្ញុំមក។ ខ្ញុំទំនេរ។**

3) 누가? **នរណាគេ?**

누가 예수님을 어제 믿었니?

따(으) 네악 나 반 **뚜**뚜**울** **쫘(으) ប្រេ**아**예**수 **갈**빠**트**썰**먼?**

តើនរណាគេបានទទួលជឿព្រះយេស៊ូ កាលពីម្សិលមិញ។

누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니?

따(으)노나**게**능**트**봐**이**찌**뵐**r**버**클**론**덜**ប្រេ**아**찌**어**며**짜**썸**트**랍**ப்**로**떼**감**뿌**지**어?

តើនរណាគេនឹងថ្វាយជីវិតរបស់ខ្លួនដល់ព្រះជាម្ចាស់សំរាប់ប្រទេសកម្ពុជា?

4) 무엇이든(whatever)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악 트봐**어**봐**이** **꺼**다**오**이 **썸** **트**봐**이**위**찌**어 **세**레**이**r**릉** **덜** **ប្រេ**아**찌**어**며**짜

អ្នកធ្វើអ្វីក៏ដោយសូមថ្វាយវាដល់ព្រះជាម្ចាស់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한다.
네악 트뵈 어봐이 꺼다오이 크눔능꼬암뜨로네악찌어
អ្នកធ្វើអ្វីក៏ដោយ ខ្ញុំនឹងគាំទ្រអ្នកជានិច្ច

5) 어느 것 (which)

너는 무엇을 더 좋아하니?
네악 졸쩃 무이 나 찌영 អ្នកចូលចិត្តមួយណាជាង?

너는 공부를 하는 것과 노는 것 중에 무엇이 너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따으네악꼰타어봐이미언쁘로야웃찌영 찼뿌어h 아나꾼르버네악 찌어까씩싸 르까레잉?
តើអ្នកគិតថាអ្វីមានប្រយោជន៍ជាងចំពោះអនាគតរបស់អ្នក ជាការសិក្សា ឬការលេង?

3. 아오이 (ឲ្យ, អោយ, ជូន)

1)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 : (목적어)가 ~를 하도록 하다

나는 그가 노래를 부르게 했다.
크눔 반 아오이 꼬안 쥘리영 ខ្ញុំបានឲ្យគាត់ប្រៀង

그는 나로 하여금 신나게 춤을 추게 했다.
꼬안 반트뵈 아오이 크눔 r로암 양쩃바이 으릭리에이
គាត់បានធ្វើឲ្យខ្ញុំរាំយ៉ាងសប្បាយរីករាយ។

2) 주어+동사+아오이+목적어 : (목적어)가 ~를 하도록 하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도록 권면했습니다.
꾸루공위얼 룻떡쩃 아오이크메잉 크메잉 톤떼인 코 뿌레아ჟ뻔
គ្រូគង្វាលលើកទឹកចិត្តឲ្យក្មេងៗទន្ទេញខគព្រះគម្ពីរ។

그는 나를 시장에 강제로 보냈다.
꼬안 봉킵 아오이 크눔 떠으 프싸 គាត់បង្ខំឲ្យខ្ញុំទៅផ្សារ។

3) 주어+아오이+목적어 : ~주다

ក្បូក្បើម បា អាយ ប្រេអ៊ុក មក ក្បូ គ្រូគង្វាលបានឲ្យព្រះគម្ពីរមកខ្ញុំ។

ក្បូរក្បាយ អាយុ ប្រាំបី ឆ្នាំ គ្រូគង្វាលអោយព្រះគម្ពីរខ្ញុំ។

그는 나에게 생일선물을 주었다.

코안 반 아오이 까도우쿠읍점나을 목 크눔 គាត់បានឲ្យកាដូខ្ទប់កំណើតមកខ្ញុំ។

កខា បា អោយ កាដូឡុណូម ស្រីត្រាបកូស្យកំនា គាត់បានឲ្យកងខ្ញុំសំរាប់ខ្លួនកំណើត។

4)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전치사)+목적어 : ~에게

그는 자건거를 친구에게 선물로 줍니다.

ក្រោយ គ្រប់ ពេល មើល(ឃើញ)ក្រោយ បិទ ភ័យ គាត់ជូនរងដល់មិត្តភក្តិគាត់ជាកាដូ។

목사님은 매주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꾸루꽁위얼 트뵈까프나 카툑 떠으 싸마쩍그롬쫂눔 r르버 꼬알 리영로알싸쁘다

គ្រូគង្វាលធ្វើការផ្ញើ카톡ទៅសមាជិកក្រុមជំនុំរបស់គាត់ រៀងរាល់សប្តាហ៍។

5)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형용사 혹은 부사: ~되도록, ~하게

차를 너무 급하게 몰지 마세요.

솜 꼼 바 으 란 른 빼 익 សូមកុំបើកឡានលឿនពេក។

그는 그녀로 하여금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꼬알 반트뷔 아오이 니영 쓸로란 꼬알 다오이 쓰머h

គាត់បានធ្វើអោយនាងស្រលាញ់គាត់ដោយស្មោះ។

6)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전치사)+목적어 : ~위하여

그는 아들을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했다.

គាត់បានទិញកង់អោយកូនគាត់។

7)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 :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 줄 것을 약속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크눔 능 아티탄 떠으깐 뿌레아찌어머짜 썸므랍 네악 아오이

ខ្ញុំនឹងអធិស្ឋានទៅកាន់ព្រះជាម្ចាស់សំរាប់អ្នកឲ្យ។

내가 너를 위해 내일 차를 보낼 것이다.
통아이짜엑 **크눔** **능** **프냐** **란** **무이** **썸트랍** **네악** **아오이**
ថ្ងៃស្អែកខ្ញុំនឹងធ្វើឡានមួយអោយសំរាប់អ្នកឲ្យ។

8) 主어+**쏟아오이**+목적어+동사

목사님은 그에게 담배를 끊을 것을 부탁했다.
꾸루공위얼 **쏟아오이** **꼬안** **츈** **쭈바레이** **ត្រួតង្វាលសូមឲ្យគាត់ឈប់ជក់បារី។**

그는 소카에게 인사를 잘 하도록(예의를 갖추라고) 부탁했다.
꼬안 **쏟아오이** **소카** **썰** **꾸어썸** **គាត់សូមឲ្យសុខាចេះគួរសម។**

9) 主어+**ჟოაოი**+목적어+동사 : 목적어가~하기를 기대한다.

목사님은 그가 담배를 끊기를 기대하고 있다.
꾸루공위얼 **ჟოა오이** **고안** **츈** **쭈바레이** **ត្រួតង្វាលរំពឹងថាគាត់នឹងឈប់ជក់បារី។**

그는 소카가 인사 잘 하기를(예의가 바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꼬안 **ჟო아오이** **소카** **썰** **꾸어썸** **គាត់រំពឹងថាសុខានឹងចេះគួរសម។**

4. **틀로압** (ធ្លាប់)

1) **틀로압**은 ‘~해 본적이 있다’의 표현을 할 때 쓰인다.

그는 교회에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꼬안 **틀로압** **떠으** **쁘레아뷔히어** **គាត់ធ្លាប់ទៅព្រះវិហារ។**

그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꼬안 **틀로압** **썰로란** **니영** **언?** **គាត់ធ្លាប់ស្រឡាញ់នាងអត់?**

2) **다엘**의 부정은 **언(អត់)**이 아닌 **먼(មិន)**, 그래서 **먼다엘**(**미스**ដែល / **미스**ធ្លាប់)로 표현된다.

그는 교회에 다녀 본 적이 없다.
꼬안 **먼다엘**(**틀로압**)**떠으** **쁘레아뷔히어** **떼** **គាត់មិនដែល(ធ្លាប់)ទៅព្រះវិហារទេ។**

그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
꼬안 **먼다엘**(**틀로압**)**썰로란** **니응** **떼** **គាត់មិនដែលធ្លាប់ស្រឡាញ់នាងទេ។**

5. 미연(미)

1) 주어+미언(ㅅ) + 목적어로 ~를 가지고 있다(소유)를 표현한다.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크눔미언쁘레아꿈뻔 **ខ្ញុំមានព្រះគម្ពីរ។**

나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크눔미언뜨롭썸받쓰독쓰담 ខ្ញុំមានទ្រព្យសម្បត្តិស្តុតស្តម។

우리 마을에는 높은 산이 있다.

នេក្រុងក្នុងភូមិខ្ញុំ មានភ្នំខ្ពស់មួយ។

2) **미언(미S)**이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문장 맨 앞에 쓰일 때 미언은 다양한 역할을 문장에서 수행한다.

- 크마에 문장 가운데 이러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 꼭 익혀두기를 바란다.

A. ~한 사람이 있음을 표현할 때

깜빡툼으로 가는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មីនម្តងទៀត មិនស្គាល់ឡានទៅខេត្តកំពង់ធំទេ។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មនុស្សមានបាបកំពុងស្វែងរកព្រះជាម្ចាស់។

៤. មិនយល់ពីការប្រកាសនេះទេ ដូច្នេះមិនបានចុះឈ្មោះទេ។
 ម្នាក់មានបាបពួកគេកំពុងស្វែងរកព្រះជាម្ចាស់។

● **설명**: 두 개의 **미언**(**mis**)이 쓰이고 있는 데 앞의 미언은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문장 맨 앞에 쓰인 미언이고 두 번째 미언은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진 문장의 동사이다.

B. ~한 누군가가 있음을 표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저 모토를 탔다.

[illegible]

누군가 외치기를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다.

미언 께 쓰라엑 **쁘로까**(**닉예이**) 타 **쁘레아**예수 **찌어** **쁘레아**송꾸루어h
មានគេស្រែកប្រកាស(និយាយ)ថា ព្រះយេស៊ូជាព្រះសង្ឃៈ។

3) **미언**(**មាន**)은 **반**(**បាន**)처럼 과거형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어제 소카는 학교에서 축구를 했다.

프쩔멘 소카 반 **레이** **또안발** **너으** **썰라**
ម្សិលមិញសុខបានលេងទាត់បាល់នៅសាលា។

어제 소카는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다.

프쩔멘 소카 반 **즈리응****ჟმ리응** **쏘싸덩**까은 **너으** **쁘레아**뷔히어크눔
ម្សិលមិញសុខបានប្រៀងចំរៀងសរសើរដង្ហើននៅព្រះវិហារខ្ញុំ។

4) **미언**의 반대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A. **미언**(**មាន**) 소유하다의 뜻을 나타낼 때 ↔ **언미언**/ **크미언**(**អត់មាន**/ **គ្មាន**)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크눔 **언미언**(**크미언**) **쁘레아**꿈빠 **떼** **ខ្ញុំអត់មាន(គ្មាន) ព្រះគម្ពីរទេ។**

나는 자동차가 없다

크눔 **언미언**(**크미언**) **란** **떼** **ខ្ញុំអត់មាន(គ្មាន) ឡានទេ។**

B. **미언**이 소유하다 외의 문법단어로 쓰일 때

a. ~한 사람이 없음을 표현할 때 → **언미언**(**អត់មាន**) / **크미언**(**គ្មាន**)

그 때 그를 도운 사람은 없었다.

너으 **빨누** **언미언** **네악**쭈어**이**꼬안떼 **នៅពេលនោះអត់មានអ្នកជួយគាត់ទេ។**
너으 **빨누****크미언****네악**쭈어**이**꼬안떼 **នៅពេលនោះគ្មានអ្នកជួយគាត់ទេ។**

예수님을 매우 사랑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언썸**미언****네악**다**엘**썸**로란****쁘레아**예수**찌어**클랑**라으**이
អត់សូវមានអ្នកដែលស្រឡាញ់ព្រះយេស៊ូជាខ្លាំងឡើយ។
머눅(**네악**)**다**엘**썸****로란****쁘레아**예수**찌어**클랑**끄**엇**썸****미언**떼
មនុស្ស(អ្នក)ដែលស្រឡាញ់ព្រះយេស៊ូជាខ្លាំងគឺអត់សូវមានទេ។

b.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표현할 때(no one.none)

이 곳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크미언 노나므네악 너으 띨니 쓸로란 ٱ레아예수 떼
គ្មាននរណាម្នាក់នៅទីនេះស្រឡាញ់ព្រះយេស៊ូវទេ។

아무도 나와 비할 자가 없다.

크미언 노나므네악 앓 ٱ리을 찌어므우 크눔 반 라으이
គ្មាននរណាម្នាក់អាចប្រៀបធៀបជាមួយខ្ញុំបានឡើយ។

6. 반 (បាន)

1) 반은 동사의 과거시제를 표현한다. - 주로 생략된다.

그는 밥을 먹었다.

꼬알 반 남 바이 하으이 គាត់បានញ៉ាំបាយហើយ។
꼬알 남 바이 ㄹ루잇 하으이 គាត់ញ៉ាំបាយរួចហើយ។

그는 10년에 프놈펜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꼬알 반 쯔울ㄹ루엄 ㄱ름쫌눔 무이 너으 프놈펜 오ㄹ로아h 러악 ٱ엘찌응 덩츠남
គាត់បានចូលរួមក្រុមជំនុំមួយនៅភ្នំពេញអស់រយៈពេលជាង១០ឆ្នាំ។

2) 반(បាន)은 아읏(អាច)과 함께 가능성을 표현한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크눔 아읏 쯔리영 쫌리영 누 반 ខ្ញុំអាចច្រៀងចំរៀងនោះបាន។

지금 그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아일러으 꼬알 아읏 트뵈까 프싸이 덩렁로오 반 ឥលូវគាត់អាចធ្វើ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បាន។

3) 반(បាន)은 영어의 could you..?(may I..?)의 문장에서 사용된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따으 크눔 쓸로란 네악 반 떼? តើខ្ញុំអាចស្រឡាញ់អ្នកបានទេ?

당신과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해도 될까요?

따으 크눔 아읏 닉예이 찌어무이 네악 엄ٱ ٱ레아예수 무어프렌 반 떼?
តើខ្ញុំអាចនិយាយជាមួយអ្នកអំពីព្រះយេស៊ូមួយភ្លែតបានទេ?

4) already or yet의 영어형식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크마에는 반을 사용해서 ‘반하으이르
너으(បានហើយនៅ)’로 표현한다.

그는 지금 울음을 그쳤니?

ក្រោយ បង ចុះ មក ឬ? គាត់បានឈប់យំនៅ?

따으 꼬알 반 चुप 음 하으이르너으? **តើគាត់បានឈប់យំហើយរឺនៅ?**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니? 안 믿고 있니?

따으아일러으꼬안검뽕즈으뽕레아예수? 르먼즈으?

តើឥឡូវគាត់កំពុងជឿព្រះយេស៊ូវ? ឬមិនជឿ?

5) 간혹 반(반)은 하이(하이)와 함께 크마에에서 영어의 완료시제와 같은 시제를 표현한다.

그는 교회의 일을 마쳤다.

꼬알 반 चुप 트वृकगिअर भ्रैआबृहिअर हाई

គាត់បានឈប់ធ្វើការងារព្រះវិហារហើយ។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꼬알반뚜뚜얼쫘으쁘레아예수땅뻘크메잉목하으이

គាត់បានទទួលជឿព្រះយេស៊ូវតាំងពីក្មេងមកហើយ ។

6) 반(반)은 아오이(아오이)와 함께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 수식된 형용사의 의미가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표현한다.

그는 우리를 완전히 기쁘게 해 주었다.

꼬알 반 트뷰 아오이 여응 미언까 반 썸바이 r릭리에이 짜어 클랑

គាត់បានធ្វើអោយយើងមានការសប្បាយរីករាយជាខ្លាំ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

쁘레아로헬 네이 쁘레아예수 반 리응쏴알 업쁘밥 r르버 영크눔 아오이 싸안

ព្រះលោហិតនៃព្រះយេស៊ូវបានលាងសំអាតអំពើបាបរបស់យើងខ្ញុំអោយស្អាត។

7) 반(반)은 꺾(꺾)와 함께 아래에 있는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A. ~해도 된다. (~ក៏បានដែរ)

ប្រសិនបើអ្នកមិនទាន់ចង់ជឿព្រះយេស៊ូវឥឡូវនេះទេ អ្នកអាចសាកមកព្រះវិហារសិនក៏បាន។

ប្រសិនបើអ្នកអត់ចង់ឮបាយ អ្នកអាចឮនំប៉័ងក៏បានដែរ។

៖ ឆ្លើយតប៖ ប្រសិនបើ ប្រជាជន ក្នុងតំបន់ មិន បាន ប្រើប្រាស់ ធនធាន ទឹក ដោយ ប្រុងប្រយ័ត្ន ទេ គេ អាច បង្ក ឱ្យ មាន បញ្ហា ក្នុង ការ ប្រើប្រាស់ ទឹក បាន យូរ អង្វែង ទៅ ទៀត បាន ឬ ទេ ។
 ឆ្លើយតប៖ ប្រសិនបើ ប្រជាជន ក្នុងតំបន់ មិន បាន ប្រើប្រាស់ ធនធាន ទឹក ដោយ ប្រុងប្រយ័ត្ន ទេ គេ អាច បង្ក ឱ្យ មាន បញ្ហា ក្នុង ការ ប្រើប្រាស់ ទឹក បាន យូរ អង្វែង ទៅ ទៀត បាន ឬ ទេ ។

ឲ្យក្រុម ពុំ បោះឆ្នោត ហើយ ប្រាប់ គ្នា ថា ប្រសិន បើ គ្មាន គ្រូ បង្រៀន ទេ គេ មិន អាច បោះ ឆ្នោត បាន ទេ ។ ប៉ុន្តែ ការ ពិត ទៅ គេ មិន បោះ ឆ្នោត ទេ ។ គេ បោះ ឆ្នោត តែ ម្នាក់ គត់ គឺ លោក ហ៊ុន សែន ។ គេ បោះ ឆ្នោត តែ ម្នាក់ គត់ គឺ លោក ហ៊ុន សែន ។ គេ បោះ ឆ្នោត តែ ម្នាក់ គត់ គឺ លោក ហ៊ុន សែន ។

យើងទៅព្រះវិហារលឿនក៏បានយឺតក៏បាន។

ក្នុងការអធិស្ឋានអ្នកយំក៏បានមិនយំក៏បាន។

ក្រោយពីច្រៀងសរសើរតម្កើនចប់ ពួកយើងធ្វើការប្រជុំអធិដ្ឋាន។

ប្បឺនក្រូម ណាម ហៃ អាយិ (បន្ទាប់មក) ផឹកកាហ្វេ
 ពួកយើងប្រាប់បាយហើយ (បន្ទាប់មក) ផឹកកាហ្វេ។
 ក្រាហ្វិក ណាម ហៃ អាយិ ប្រឺនក្រូម ក្រាហ្វិក
 ក្រាហ្វិក ប្រាប់បាយហើយ ពួកយើងផឹកកាហ្វេ។

7. ច្រើន(ត្រូវ)

1) ប្រាកដថា ‘ឆ្ងាយ’ ឬ ‘ឆ្ងាយ’ មានន័យដូចគ្នា។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ឆ្ងាយ។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ឆ្ងាយ ឆ្ងាយ ឆ្ងាយ។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ឆ្ងាយ ឆ្ងាយ ឆ្ងាយ។

2) ក្រោយ(ត្រូវ) ជាមួយ ‘ចាំបាច់’ មានន័យដូចគ្នា។ (ច្រើន ក្រោយ)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3) ចាំបាច់(ត្រូវ) ជាមួយ ‘must’ មានន័យដូចគ្នា។ (ច្រើន ចាំបាច់ ត្រូវតែ)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4) ‘~ ដូចគ្នា’ មានន័យដូចគ្នា។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គាត់ ធ្វើការ បាន ល្អ ណាស់ ត្រឹមត្រូវ។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의 보혈은 같은 의미이다.

츠이엄 r르버 ㅼ레아예수 능 로헛 r르버 ㅼ레아예수 ㄱ 미언 네이 도잇 따에 크나이
ឈាមរបស់ព្រះយេស៊ូវនិងលោហិតរបស់ព្រះយេស៊ូវគឺមានន័យដូចតែគ្នា។

5) 수동태의 문장을 표현한다.

소카는 미니어를 사랑했다. (능동태)

소카 ㅼ안 반 ㅡ로란 미니어 សុខាគាត់បានស្រឡាញ់មីនា។

미니어는 소카에게 사랑을 받았다. (수동태)

미니어ㅼ르ㅡ반ㅡ로란다오이소카 មីនាត្រូវបានស្រលាញ់ដោយសុខា។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ㅼ레아예수 ㅼ르ㅡ 반 속곳 다오이싸 ㅡㅼㅼㅼㅼ r르버영
ព្រះយេស៊ូវត្រូវបានសុគត់ដោយសារអំពើបាបរបស់យើង។

6) ㅼ(ㅼ)과 함께 ‘~바로 그’ 혹은 ‘~해당하는’의 의미를 표현한다.(ㅼ르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그 갈보리산 정상이었다.

ㅼ라ㅇ다ㅇ ㅼ레아예수 ㅼ르ㅡㅼ ㅼ반 처강 ㄱ 룽 ㅼㅼㅼ ㅼ눔 ㅼ보리
កន្លែងដែលព្រះយេស៊ូវត្រូវចំបានឆ្កាង គឺលើកំពូលភ្នំកាវី

이곳이 바로 내가 말 한 그 산이다.

ㅼ라ㅇ니 ㅼㅼㅼ(ㅼ르ㅡㅼ) ㅼ눔 다ㅇ 크눔 ㅼ반 ㅼ예ㅇㅇㅇㅇ
កន្លែងនេះគឺជា(ㅼ르ㅼ)ភ្នំដែលខ្ញុំបាននិយាយហ្នឹងឯង។

Khmer writing

10강

크마에 문법을 바탕으로
크마에 작문 연습

1. 문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언어의 문장 체계 즉 문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통해 올바르게 말을 하고 문장을 쓰기 위함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문법이 문장을 체계적으로 작문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여러 문장을 작문함을 통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독자에게 부탁하고 싶고 소망하는 것은 한국어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면 다른 언어의 문법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자와 함께 크마에 작문을 지면을 통해 연습해 나가면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깨달아 가는 것이다. 한국어를 잘하면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는 명제가 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크마에 작문을 함에 있어, 영어에도 해당되는 것인데, 유의해야 할 것은 문장의 형식을 먼저 결정하고 그 형식에 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밝혀내는 일이다. 그 후에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구, 절), 부사(구, 절) 혹은 전치사+명사 인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3. 한국어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장들의 형식을 구분해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장 구조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의사전달로 기대할 수 없고 바른 문장을 쓸 수도 없다.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일지라도 문장구조만 분석이 되면 번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문 또한 가능하다.

4. 한국어의 형식과 영어 크마에의 형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일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동사가 크마에와 영어에서 정확하게 대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사의 종류와 쓰임에 있어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5. 아래의 한국어 문장들의 형식을 결정해보고 문장 성분을 찾는 연습을 해 보자. 아래의 예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국어의 문장들을 보고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 이 문법책의 가치를 확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철수는 병원에 갔다 - 1형식
- 철수와 영희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 1형식
- 철수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에 함께 갔다. - 1형식
- 철수는 훗날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 2형식
- 철수는 의사가 되었고 영희와 부부가 되었다. - 2형식
- 철수와 영희는 자녀들과 부모님 모두를 깊이 사랑했다. - 3형식

- 철수와 영희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 주었다. - 4형식
- 철수와 영희는 자녀들을 언제나 그들의 생일 때 영화관으로 데려갔다. - 4형식
- 철수는 영희와 그의 자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다. - 5형식

● **설명** - 문장의 형식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고 이러한 훈련들은 우리가 표현하려는 외국어 문장들의 문장구조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서 어휘의 실력만 향상되면 즉각적인 표현과 작문을 가능하게 해 준다.

6. 크마에 문장을 작문해 보자

1) 1형식 문장(주어+자동사)을 작문해 보자

A. 어제 소파는 아빠를 만나러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μπρλδεν 소파 반 찍란 떠으 찰라 다음바이 쫌 빠르보꼬

ម៉ីលមිព្រុសុផាបានជិះឡានទៅសាលាដើម្បីជួបប៉ាបស់គាត់។

- **문장분석** : 문장을 먼저 분석해 보면, 주어는 소파이고 동사는 갔다 임을 알 수 있다. 목적어와 보어가 없으므로 1형식 문장이다.

@ 소파는 갔다 소파 반 떠으 **სუფაបានទៅ**

- **문장분석** : 주어는 소파, 동사는 갔다 이다. 보어와 목적어가 없으므로 1형식 문장이다.
- **한국어 문법** : 소파 오른쪽에 주격조사-는-을 사용함. ‘갔다’는 ‘가다’ 동사의 과거형,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주격조사가 없으므로 주어는 그냥 소파가 된다.
- **한국어 문법** : ‘가다’ 동사의 과거형은 ‘갔다’
- **크마에 문법** : ‘가다’와 같은 크마에 단어는 ‘떠으’의 과거형은 ‘반 떠으’

@ 소파는 학교에 갔다. 소파 반 떠으 찰라 **სუფაបានទៅសាលា។**

- **문장분석** : 학교에 라는 수식어가 있다. 이를 보면 학교라는 명사에 -에-를 붙여 부사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학교’의 뜻을 가진 의 크마에 단어는 ‘찰라’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명사+에를 붙여 명사를 부사화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전치사 + 명사의 형태를 취함으로 부사화한다.
- **한국어 문법** : -에-는 장소에 붙는다. ‘명사+에’의 형태로 부사 역할을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문법에서 한국어 조사 -에- 해당하는 것은 ‘떠으’이다. 그런데 크마에는 전치사+명사 형태로 부사 역할을 한다.

@ 소파는 아빠를 만나러 학교에 갔다.

꼬안 반 떠으 찻라 다음바이 줍 빠 r르버 꼬

សុផាបានទៅសាលាដើម្បីជួបប៉ារបស់គាត់។

- **문장분석** : 여기는 수식어가 ‘학교에’라는 단어들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 데 ‘아빠를 만나러’이다. 이것이 왜 수식어인가 하면 동사인 ‘갔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나다’라는 동사가 ‘만나러’ 혹은 ‘만나기 위해’로 부사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사가 부사화되더라도 동사는 여전히 동사이다. 따라서 동사의 목적어는 앞에 있는 ‘아빠를’이 된다.
- ‘만나다’라는 크마에 동사는 ‘줍’이다. ‘아빠’는 크마에로 ‘빠’이다.
- **한국어 문법** : 그녀+의+아빠
- **크마에 문법** : 빠(아빠)+r르버(의)+꼬안(그녀)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 뒤에 ~위하여, ~위해, ~위해서 등이 동사 뒤에 붙어 부사의 역할을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단 두 단어 ‘다음바이’와 ‘썸즈랍’이라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여 표현한다.

@ 소파는 어제 아빠를 만나러 학교에 차를 타고 갔다.

므썰멘 소파 반 짝란 떠으 찻라 다음바이 줍 빠 r르버꼬

មុលីមិញសុផាបានជិះឡានទៅសាលាដើម្បីជួបប៉ារបស់គាត់។

- **문장분석** : 이미 1형식 문장임을 판명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단어와 구 혹은 절이 오든 문장은 1형식이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와 구, 절 등은 수식어라 할 수 있다.
- 이 문장에서 다시 첨가된 ‘어제’와 ‘차를 타고’는 모두 수식어 그 중에서도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제’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므썰멘’ ‘차를 타고’는 ‘타다’동사에 목적어‘차를’이 붙은 것이고 -고-는 수단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 뒤에 붙는 어미이다. ‘타다’는 크마에로 ‘ 짝’ 차는 ‘란’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동사는 어미가 있다. 그래서 ‘타다’ 동사를 ‘타고’로 표현케 해서 부사의 역할을 하게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어미가 없다. 그래서 한국어처럼 표현하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수단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 ‘다오이(따이)’를 사용한다. ‘다오이’는 전치사이므로 동사를 명사화해야 한다.

B. 내일 모레 우리들은 캄보디아에 선교팀과 함께 프놈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싸엑칸사예 영 능 목달 뽀롤리언윤허h프놈펜다오이쑤앗뜨피업찌어무이(능)끄롬베이싸까깁

ស្នែកខានស្នែក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លានយន្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ថិភាពជាមួយនិងក្រុម បេសកកម្ម

- **문장분석** : 먼저 문장을 분석해 보면 주어는 ‘우리들은’이고 동사는 ‘도착할 예정이다’이다. 목적어와 보어가 없음으로 1형식 문장이다.

@ 우리들은 도착할 예정이다. 영 능 목달 យើងនឹងមកដល់

- **문장분석** : 우리들은 도착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우리식 표현이므로 1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주어 '우리들은' 크마에로 '영크눔'이고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말은 순 우리식표현이므로 이것을 쉽게 바꿔 쓰면 '도착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도착하다'라는 뜻의 크마에는 '목달하으이'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의 시제의 미래는 어미 'ㄹ 것이다'로 표현한다.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한다.
- **크마에 문법** : 동사의 미래 시제 앞에 붙는 '능'을 동사 앞에 붙인다. 어미가 없기 때문에 보조동사 '능'이 필요하다.

@ 우리는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영 능 목 달 다오이 쏘왓뜨피업 យើងនឹងមកដល់ដោយសុវត្ថិភាព

- **크마에 문법** : 위 문장에서 '무사히'라는 단어가 더 첨가해 있음을 본다. '무사히(부사)'라는 뜻의 크마에 부사는 없다. 이 때는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단어를 조합해야 한다. '무사' 혹은 '안전'이라는 뜻의 크마에는 '소왓뜨피업(수프티카)'이 있다. '무사히'는 '안전으로써'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함으로 '다오이(데와)'라는 전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사히'는 '다오이쏘왓뜨피업(데와수프티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우리는 무사히 프놈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영 능 목 달 뽀롤리언윤허h프놈펜 다오이 쏘왓뜨피업

(혹은 영 능 목 달 다오이 쏘왓뜨피업 너으 뽀롤리언윤허프놈펜 하으이)

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លានយន្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ថិភាព

- **한국어 문법** : '프놈펜 공항'이라는 고유명사에 '-에'가 붙어 프놈펜 공항이라는 고유명사를 부사화 시켰다. '프놈펜공항+에' 처럼 ~에가 명사 뒤에 위치한다.
- **크마에 문법** : 전치사+명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 '너으+뽀롤리언윤허h프놈펜'가 된다. 이처럼 한국어와 달리 '~에' 해당하는 '너으'가 명사 앞에 위치한다.
- **한국어문법과 크마에 문법** : 위 문장에서 '다오이쏘왓뜨피업(데와수프티카)'과 '너으뽀롤리언윤허h(នៅព្រលានយន្តហោះភ្នំពេញ)'는 서로 위치를 바꾸어 사용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부사(구, 절)은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내일 모레 우리들은 프놈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싸엑칸싸엑영능목달 뽀롤리언윤허h프놈펜다오이쏘왓뜨피업

ស្អែកខានស្អែក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លានយន្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ថិភាព

- **문장분석** : 위 문장은 앞의 문장에서 ‘내일 모레’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더 첨가되어 있음을 본다.

- ‘내일 모레’를 뜻하는 크마에는 ‘**싸엑칸싸엑**’(ស្បែកខានស្បែក)이다.

- **한국어문법과 크마에 문법** : 크마에서도 한국어와 영어처럼 시간부사는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문장 앞에 써보았다.

@ 내일 모레 우리들은 프놈펜 공항에 선교팀과 함께 프놈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싸엑칸싸엑 ឲ្យ ង មក ប្រជុំ ប្រគល់ ឲ្យ អ្នក ទៅ ទី ក្រុង ភ្នំពេញ ដោយ សុវត្ថិភាព ជា មួយ នឹង ក្រុម បេសកកម្ម ស្បែកខានស្បែក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លានយន្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ថិភាពជាមួយនឹងក្រុមបេសកកម្ម

- **문장분석** : 위 문장은 ‘선교팀과 함께’라는 부사구가 더 첨가되어 있음을 본다. ‘~와 함께’는 명사와 쓰여서 부사 역할을 하게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짜어무이**’(ជាមួយ)’라는 전치사가 이 역할을 한다.

- ‘선교팀’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그롬베이삭각감**’(ក្រុមបេសកកម្ម)’이다.

- 한국어와 크마에 문법 : 이 역시 부사구이므로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C. 역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ប្រសិនបើ ប្រភព ទឹក ធ្លាក់ ចុះ ច្រើន ក្នុង មួយ រយៈពេល វា បាន ឈប់ ហើយ គាត់ បាន ញញឹម និង ចូល មក រក ខ្ញុំ ដោយ មាន កាន់ បាច់ ផ្កា នៅ ក្នុង ដៃ ។

ប្រសិនបើ ប្រភព ទឹក ធ្លាក់ ចុះ ច្រើន ក្នុង មួយ រយៈពេល វា បាន ឈប់ ហើយ គាត់ បាន ញញឹម និង ចូល មក រក ខ្ញុំ ដោយ មាន កាន់ បាច់ ផ្កា នៅ ក្នុង ដៃ ។

- **문장분석** :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 문장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종속절은 ‘역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이고 주절은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이다. 문장의 형식은 주절에 의해 결정됨으로 주절을 보면, 동사는‘왔다’이고 주어는‘그는’이다. 목적어와 보어가 없음으로 1형식 문장임을 알 수 있다.

a. 주절부터 작문해 보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គាត់ បាន ញញឹម ហើយ ដើរ មក រក ខ្ញុំ ដោយ មាន កាន់ ផ្កា នៅ ក្នុង ដៃ ។

គាត់ បាន ញញឹម ហើយ ដើរ មក រក ខ្ញុំ ដោយ មាន កាន់ ផ្កា នៅ ក្នុង ដៃ ។

@ 그는 왔다. គាត់ បាន មក

- **한국어 문법** : ‘왔다’는 ‘오다’ 동사의 과거형이다.

- **크마에 문법** : ‘오다’ 동사는 크마어로 ‘**목(មក)**’이다 ‘목’ 동사의 과거는 형은 크마에 문법에 의하면 ‘**반 목(វាសមក)**’이다.

@ 그는 나에게(로) 왔다. **ខ្មែរ វាស មក រក ខ្ញុំ**
ខ្មែរ វា ទៅ រក ខ្ញុំ

- ‘나’는 크마어로 ‘**크눔(ខ្ញុំ)**’이다

- **한국어 문법** : ‘나에게’는 ‘나’+‘~에게’로서 대명사에 ‘~에게’를 붙여 부사화한 것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문법에서 대명사를 부사화시키는 데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전치사 중에서 ‘~에게’해당하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달**’이다.

@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왔다.

ខ្មែរ វា ញញឹម មក រក ខ្ញុំ

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មានស្មារតីញញឹមយ៉ាងស្រស់ស្រាយ។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라는 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웃음을 짓다’는 표현은 크마어로 ‘웃음을 가지다’라는 뜻의 ‘**미언 뇨눔**’이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유의할 점은 동사의 용례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어 문법** : 웃음을 짓다

- **크마에 문법** : 웃음을 가지다

- **한국어 문법** : ‘환한’은 형용사

- **크마에 문법** : ‘환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없다. 크마에는 ‘크게’라는 뜻의 부사 ‘**클랑(ខ្លាំង)**’을 사용해서 ‘ **뇨눔클랑(ញញឹមខ្លាំង)**’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를 잘 인식해야 크마에를 잘 말할 수 있게 됨을 명심하자.

- **크마에 문법** : ‘환한 웃음을 짓다’가 아니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라는 부사구이므로 동사구를 부사화시켜주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어울리는 전치사를 생각해 보면 역시 ‘**다오이(ដោយ)**’뿐임을 알 수 있다.

@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 왔다.

ខ្មែរ វា ញញឹម មក រក ខ្ញុំ ជាមួយ ក្របី ផ្កា

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ញញឹមព្រមទាំងយកក្របីមកជាមួយផង

----- **다오이 뇨눔 쁘롬페앙 미언 깐 프까 목 찌어므이평**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꽃다발을 들고’라는 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WITH FLOWER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들고’라는 동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도 영어 “WITH”에 해당하는 ‘**찌어무이(ជាមួយ)**’라는 전치사가 있지만, ‘찌어무이 프카’로 쓸 수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도 한국어처럼 ‘들고’라는 동사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들다’는 뜻의 크마에는 ‘**옥**’이다. ‘들고’는 수단을 의미하므로 ‘**다오이**’를 쓸 수 있다. 꽃은 크마어로 **프까(ផ្កា)**이다. 따라서 ‘**다오이(កា)옥 프까(ដោយយកផ្កា)**’로 표현할 수 있다.
- **한국어 문법** : 연속된 동작의 동시성을 강조할 때 동사 뒤에 ‘~고’를 붙인다.
- **크마에 문법** : ‘**쁘롬떼앙(ព្រមព័ន្ធ)**’이라는 동시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여 표현할 수 있다. ‘쁘롬떼앙+동사’는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 **영어문법** : 주로 with+분사 구문의 형태로 표현한다.
- 나에게로 온 것과 꽃다발을 든 상황은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b. 이제 종속절을 작문해 보자.

역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

본또압빠(ក្រោយ)플리영 다엘 틀레악양 클랑 반 춤 하오이

បន្ទាប់(ក្រោយ)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បានរាំង)

@ 비가 그치다 플리영 춤 하오이/ 플리영 반 r레앙 **ភ្លៀងឈប់ហើយ / ភ្លៀងបានរាំង**

- **문장분석** : 1형식의 문장이다.
- ‘그치다’라는 동사는 크마어로 ‘**춤(ឈប់)**’이다. ‘비’는 크마어로 ‘**플리영(ភ្លៀង)**’이다.
- **크마에 문법** : 비가 그친 완료 상태이므로 ‘**하오이(ហើយ)**’를 붙인다.
- **한국어 문법** : 완료 시제가 쓰이지 않는다.

@ 역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다.

플리영 다엘 틀레악 양 클랑 반 춤 하오이

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បានរាំង)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역수같이 내리던’이라는 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한국어 문법** : ‘역수같이 내리던’이 명사‘비’를 수식함으로 형용사구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내리다’ 동사에 ‘-던’이라는 접미어를 붙여 형용사화 해서 ‘비’를 수식할 수 있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동사를 형용사화하는 방법은 ‘**다엘(ដែល)**’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형용사 파트에 ‘다엘’부분을 한 번 공부하길 바란다.

- **크마에 문법** : ‘**다엘(ដែល)**’은 관계대명사이므로 ‘**다엘(ដែល)**’앞에는 선행하는 명사가 와야 한다. ‘**다엘(ដែល)**’다음에 오는 문장에 의해 수식을 받는 명사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는 ‘비’다.

- **크마에 문법** : ‘**다엘(ដែល)**’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하는 데 여기서 동사는 ‘내리다’이다. ‘내리다’ 뜻의 크마에는 ‘**틀레악(ត្រេក)**’이다.

- **크마에 문법** : ‘억수같이’라는 뜻은 크마에에 없음으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으면 ‘**클랑**’이다. 이 ‘**클랑(ក្លាំង)**’과 같은 부사를 더 강조하는 부사로 ‘**양(យ៉ាំ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혹은 그치자마자)

본또압빠 플리엥 다엘 틀레악양 클랑 반 춤 하으이(반r레앙)

បន្ទាប់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បានរាំង)

- **문장분석** : 이 문장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이루어진 종속절이다. 이 말은 이 부사절이 주절의 동사를 꾸며준다는 말이 된다. 이 한국어 문장에서 마지막에 접미어‘-자’가 붙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된 종속절임을 알 수 있다.

- **크마에 문법** : 부사절 접속사로 이루어진 종속절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접미어가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비가 그친 후에’라는 표현은 쓸 수 있어도 ‘비가 그치자마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 **크마에 문법** : ‘~후에’의 뜻을 포함하면서 부사절을 이끄는 크마에 부사절 접속사는 ‘본또압빠(**បន្ទាប់ពី**)’가 있다.

c. 위의 주절과 종속절을 합쳐보자.

- **주절** :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꼬안 반 다을 목 r록크눔 다오이 뇨념 양 쓰러우쓰라이 뽀롬떼양 욱 프까 목 찌어무이평

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ញញឹមយ៉ាំងស្រស់ស្រាយព្រមទាំងយកផ្កាមកជាមួយផង

- **종속절** :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

본또압빠 플리엥 다엘 틀레악양 클랑 반 춤하으이

បន្ទាប់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បានរាំង)ហើយ

플리엥 춤 하으이= 플리엥 r레앙 하으이 **រាំង**

-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면 문장이 완성된다.

ឆ្នាំនោះដែរ ភ្លៀង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លប់ហើយ(បានរាំង)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ញញឹមយ៉ាងស្រស់ស្រាយ ព្រមទាំងយកក្អមកជាមួយផង។

បន្ទាប់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លប់ហើយ(បានរាំង)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ញញឹមយ៉ាងស្រស់ស្រាយ ព្រមទាំងយកក្អមកជាមួយផង។

2) 2형식 문장(주어+불완전자동사+보어)을 작문해 보자.

A. 1990년 4월 초에 그는 프놈펜 대학교 대학생이 되었다.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ផ្អែមនៅដើមខែ៤ឆ្នាំ១៩៩០។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ផ្អែមនៅដើមខែ៤ឆ្នាំ១៩៩០។

- 文장분석 : ‘되다’라는 동사가 있음으로 2형식 문장이고 보어는 ‘대학생이’임을 알 수 있다.

@ 그는 대학생이 되었다.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

- ‘그’는 크마에로 ‘**គាត់**’이다
- 한국어 문법 : ‘되었다’는 ‘되다’동사의 과거형이다.
- ‘되다’ 동사는 크마에로 ‘**ក្លាយជា**’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동사 ‘**ក្លាយជា**’의 과거형 ‘**បាន**’이다.
- 한국어 문법 : ‘되다’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보어는 ‘대학생이’임을 알 수 있다.
- 대학생은 크마에로 ‘**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오고 불완전한 동사 **ក្លាយជា** 오른쪽에 보어가 있음으로 ‘**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가 된다.

@ 그는 프놈펜대학교 대학생이 되었다.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ផ្អែម

- 文장분석 : 위 문장에서 ‘프놈펜’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어순이 프놈펜 대학교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어순은 ‘**ផ្អែម**’ (대학교) **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 (프놈펜).

- **한국어와 크마에 문법** : 이 문장에서 ‘프놈펜대학교’라는 고유명사이므로 ‘**짜폴뽀찌어라이프놈펜 (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이 된다.

- **한국어와 크마에 문법** : 만약 ‘프놈펜에 있는 대학교’라면 프놈펜에 있는 여러 대학교 중 하나의 의미이므로 ‘**짜폴뽀찌어라이너리타리엇니프놈펜**’이 된다.

@ 1990년 4월 초에 그는 프놈펜 대학교 대학생이 되었다.

ខ្ញុំ បាន បង្ហាញ ជូន គ្រូ បង្ហាញ ថា ខ្ញុំ បាន ចូល រៀន បរិញ្ញាបត្រ នៅ ឆ្នាំ ១៩៩០។

គាត់បានបង្ហាញជូនគ្រូ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នៅដើមខែឧសភាឆ្នាំ១៩៩០។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1990년 4월 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한국어 문법** : 1990년은 A.D1990년을 말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서기와 불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서기는 **끄리싸끄라**로 표현한다. 따라서 1990년은 **끄리싸끄라1990**이 된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초순, 중순, 말이라는 있다.

- **크마에 문법** : 초순은 **다음카에(ដើមខែ)**, 중순은 **빠악견달카에(ពាក់កណ្តាលខែ)**, 말은 **종카에(ចុងខែ)**이다.

- **크마에 문법** :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이므로 **츠남(ឆ្នាំ)** 앞에 전치사 **너으(នៅ)**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B. 정한선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을 마다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បាទ ប្រសិនបើ អ្នក ចង់ ដឹង ថា តើ មាន អ្នក ណា ម្នាក់ ដែល មិន ប្រសើរ ឬ មិន ល្អ ក្នុង ការ ធ្វើ ការ ទេ ឬ ទេ មិន យល់ ទេ ថា មាន អ្នក ណា ម្នាក់ ដែល មិន ប្រសើរ ឬ មិន ល្អ ក្នុង ការ ធ្វើ ការ ទេ ឬ ទេ

បេសកជនចុងហាន់ដាច់ខាតមិនមែនជាមនុស្ស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ដែលពិបាក និងមិនស្រួលព្រមទាំងត្រូវការភាពអត់ធ្មត់ច្រើនទេ។

បាទ ប្រសិនបើ អ្នក ចង់ ដឹង ថា តើ មាន អ្នក ណា ម្នាក់ ដែល មិន ប្រសើរ ឬ មិន ល្អ ក្នុង ការ ធ្វើ ការ ទេ ឬ ទេ មិន យល់ ទេ ថា មាន អ្នក ណា ម្នាក់ ដែល មិន ប្រសើរ ឬ មិន ល្អ ក្នុង ការ ធ្វើ ការ ទេ ឬ ទេ

បេសកជនចុងហាន់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ដែលពិបាក និងមិនស្រួល ព្រមទាំង ត្រូវការភាពអត់ធ្មត់ច្រើនទេ

- **문장분석** : ‘아니다’라는 동사가 있음으로 2형식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보어는 ‘사람이’이다.

- **한국어 문법** : ‘아니다’는 ‘이다’동사의 부정형이다.

@ 정한 선교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បាទ ប្រសិនបើ អ្នក ចង់ ដឹង ថា តើ មាន អ្នក ណា ម្នាក់ ដែល មិន ប្រសើរ ឬ មិន ល្អ ក្នុង ការ ធ្វើ ការ ទេ ឬ ទេ មិន យល់ ទេ ថា មាន អ្នក ណា ម្នាក់ ដែល មិន ប្រសើរ ឬ មិន ល្អ ក្នុង ការ ធ្វើ ការ ទេ ឬ ទេ

បេសកជន ចុងហាន់ដាច់ខាតមិនមែនជាមនុស្សបែបហ្នឹង ទេ

정한 선교사는 일에 대해서 마다한 적이 없다.

ប្រាកដប្រជាថា គាត់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ឡើយ

បេសកកម្មរបស់គាត់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 ទេ

- **크마에 문법** : '~이다'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찌어(ជា)' 또는 '끄찌어(គឺជា)'가 있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는 '이다'동사의 부정형 '아니다'이므로 크마에 '찌어(ជា)' 또는 '끄찌어(គឺជា)'동사 역시 부정형으로 써야 한다. '찌어(ជា)'와 '끄찌어(គឺជា)' 동사의 부정은 '찌어'와 '꺼찌어' 앞에 '언(អត់)', '먼(មិន)' 혹은 '뽀(ពុំ)'을 붙인다.

- **한국어 문법** : '아니다' 앞에 '결코'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강조를 표현하고 있다.

- **크마에 문법** : '결코'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먼다엘(មិនដែល)'이 있다. '먼다엘(មិនដែល)'은 동사 앞에 붙는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부정문 뒤에 '떼(ទេ)' 혹은 '라으이(ឡើយ)' 혹은 '너으라이(នៅឡើយ)'를 붙인다.

- 선교사는 크마어로 '빠사각준(បេសកកម្ម)'이다. 한국어는 어순이 정한 선교사가 이지만 크마에는 선교사 정한이다. 그래서 '빠사각준정한'이 된다.

@ 정한 선교사는 일을 마다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ប្រាកដប្រជាថា គាត់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ឡើយ

បេសកកម្មរបស់គាត់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ឡើយ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일을 마다할'이 '사람'을 수식함으로 '일을 마다할'은 형용사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마어로 이것을 표현하려면 '다엘(ដែល)'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위 문장에서 '일을 마다할 사람'이라는 말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다.

- '일'은 크마어로 '깡이어(ការងារ)', '받아들이다' 동사는 크마어로 '뚜뚜엘(ទទួល)'이다.

- **크마에 문법** : 다엘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와야 하는 데 위 문장에서는 사람이다.

- **크마에 문법** : 다엘 오른 쪽에 사람을 수식하는 동사가 와야 하는 데 여기서는 '뚜뚜엘(ទទួល)'이고 '뚜뚜엘'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데 여기서 목적어는 '깡이어(ការងារ)'임을 알 수 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므로 '뚜뚜엘깡이어'가 된다. 여기서는 '뚜뚜엘'동사의 부정형이므로 '뚜뚜엘' 동사앞에 언(អត់)/먼(មិន)이 붙는다.

- '일을 마다할 사람'은 '므눅다엘먼(ឈ)뚜뚜엘깡이어(មនុស្សដែលមិន(អត់)ទទួលការងារ)'가 된다.

C. @ 정한 선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일을 마다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ប្រាកដប្រជាថា គាត់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ឡើយ ព្រោះវាពិបាក និងមិនស្រួល ត្រូវការភាពអត់ធ្មត់ច្រើនទេ។

បេសកកម្មរបស់គាត់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ដែលពិបាក និងមិនស្រួល ត្រូវការភាពអត់ធ្មត់ច្រើនទេ។

- **문장분석** :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두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주절은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이고 종속절은 ‘양보절’로서 ‘오다’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임을 알 수 있다.

주절을 살펴보면, ‘이다’동사가 쓰였으므로 2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보어는 ‘사람’이다.

a. 주절부터 작문을 해 보자.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

ខ្ញុំបាទឬនាងនាងនឹងចាំរក្សាពាក្យនេះ និងមកកន្លែងណាដែលជួបតាមពេលកំណត់។

គាត់ជាមនុស្សដែលតែងតែចាំរក្សាពាក្យ និងមកកន្លែងណាដែលជួបតាមពេលកំណត់។

@ 그는 사람이다. ខ្ញុំបាទ (ឬ)នាងនាង គាត់គឺជាមនុស្ស

- ‘이다’동사에 해당하는 크마에 동사는 ‘**찌어**(**ជា**)’혹은 ‘**고찌어**(**តើជា**)’이다.

- ‘사람’은 크마에로 ‘**머눅**(**មនុស្ស**)’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이다’ 동사의 보어인 ‘사람’이 ‘이다’ 동사 앞에 와야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영어와 같이 동사의 보어인 ‘사람’이 동사 즉 ‘**찌어**(**ជា**)’와 ‘**고찌어**(**តើជា**)’ 동사 뒤에 와야 한다.

@ 그는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

ខ្ញុំបាទ ឬនាងនាងនឹងចាំរក្សាពាក្យនេះ និងមកកន្លែងណាដែលជួបតាមពេលកំណត់

- **문장분석** : ‘사람’은 ‘이 자리에 올’이라는 형용사절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다. 형용사절을 만드는데 크마에는 ‘**다엘**(**ដែល**)’이 필요하다.

- **크마에 문법** : ‘**다엘**(**ដែល**)’앞에 오는 선행사는 ‘사람’ 즉 ‘**머눅**(**មនុស្ស**)’이 되고 오른쪽에 위치할 동사는 ‘오다’라는 뜻의 크마에 단어 ‘**목**(**មក**)’이 된다.

- **한국어 문법** : ‘이 자리에’는 ‘이+자리+에’가 합쳐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사 오른 쪽에 접미어 ‘~에’가 붙어 부사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리’라는 명사는 ‘이’라는 지시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

- ‘이 자리’는 크마에로 ‘**띠니**(**ទីនេះ**)’이다.

- **크마에 문법** : ‘**띠니**(**ទីនេះ**)’가 부사역할을 함으로 전치사가 필요하다. 장소에 쓰이는 전치사는 ‘**너으**(**នៅ**)’이다.

- **크마에 문법** : ‘**띠니**(**ទីនេះ**)’앞에 전치사와 와야 함으로 ‘**너으띠니**(**នៅទីនេះ**)’가 된다.

- **한국어 문법** : ‘정시에’는 ‘정시’라는 명사에 접미어 ‘~에’가 붙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역할을 하고 있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정시에’라는 말을 전치사+명사 형태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정시에’에 해당 **តាមពេលកំណត់**

@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

ច្បាប់ច្បាប់ មេត្តាឲ្យមេត្តាឲ្យ ព្រមព្រៀង ព្រមព្រៀង ព្រមព្រៀង ព្រមព្រៀង

គាត់គឺជាមនុស្សដែលមកទីនេះទៀងទាត់ ព្រមទាំងចង់ចាំនូវការណាត់។

- 기억하다는 단어를 문어체에서는 종잡으로 쓴다. 그러나 일상회화에서는 종을 생략하고 주로 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문장분석** : 동시상황 즉 동시 동작의 형태의 문장이다. 동시 동작 혹은 동시 상황의 문장에는 ‘**빠림** **떼앙**(**ព្រមទាំង**)’ 혹은 ‘**떼앙**(**ទាំង**)’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한국어는 동사에 ‘-고’를 붙여 동시상황을 나타내지만 크마에는 동사 앞에 ‘빠림떼앙’ 혹은 ‘떼앙’을 붙여 동시 상황 혹은 동시동작을 표현한다.

- ‘**빠림떼앙**’ 오른쪽에 올 동사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이다. ‘기억하다’는 크마어로 ‘**종잡**(**ចងចាំ**)’이다.

- ‘**종잡**(**ចងចាំ**)’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뒤따른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기억하다’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 크마에는 ‘기억하다’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한다.

- ‘종잡’의 목적어는 ‘약속’이다. ‘약속’은 크마어로 ‘**쏬느냐/까난**(**សន្យា/ការណាត់**)’이다.

- ‘반드시’에 해당하는 크마에 부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아째아레악**’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다.

b. 종속절을 작문해 보자.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ធូបធូប មីនប្រឡាយ ធូបធូប ធូបធូប ធូបធូប ធូបធូប ធូបធូប ធូបធូប ធូបធូប ធូបធូប

ទោះបីមានភ្លៀង(ភ្លៀង) ឬខ្យល់បក់យ៉ាងខ្លាំងក៏ដោយ/ មិនថាមានភ្លៀង ឬខ្យល់ខ្លាំងយ៉ាងណា

@ 비가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다 **미언** **플리엥** **르** **크** **절복** **클랑** **양** **나** **꺼다** **오이**

មានភ្លៀង(ភ្លៀង) ឬខ្យល់បក់យ៉ាងណាក៏ដោយ

- ‘비가오다’는 크마어로 ‘**미언** **플리엥**(**មានភ្លៀង**)’이다.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의 ‘**틀레악** **플리엥**(**ធ្លាក់ភ្លៀង**)’이 맞지만 크마에는 ‘**미언** **플리엥**(**មានភ្លៀង**)’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다’는 ‘**미언** **크** **절복** **클랑**(**មានខ្យល់បក់(យ៉ាង)ខ្លាំង**)’이다. ‘세차게’라는 부사가 크마에 없다. 그래서 ‘바람이 세차다’할 때 크마에는 ‘**클랑**(**ខ្លាំង**)’을 강조한 ‘**양** **클랑**(**យ៉ាងខ្លាំង**)’을 사용한다.

- ‘**미언**(**មាន**)’동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미언**(**មាន**)’은 생략한다.

- **문장분석** : 위의 문장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소카를’이다. 사랑하다는 동사 앞에 ‘소카를’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3형식의 문장이다.

@ 보파는 소카를 사랑하였다. 보파 반 쓰롤란 소카 **បូជាបានស្រឡាញ់សុខា**

- ‘사랑하다’동사는 크마어로 ‘**쓰롤란(ស្រឡាញ់)**’이다. 위 문장에서 과거형이 쓰였기 때문에 크마에도 역시 ‘**반 쓰롤란(បានស្រឡាញ់)**’이 되어야 한다.

- 한국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지만 크마에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 오른쪽에 위치한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명사에 목적격 조사인 ~을 혹은 ~를 붙여 명사로 하여금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한다.
- **크마에 문법** : 하지만 크마에는 이런 목적격 조사가 없다. 주격조사인 ~이 혹은~가 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보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카를 사랑하였다.

보파 반쓰롤란 소카 **다오이 오빠쩨능오꿈넨(ធាយ អស់ពីចិត្ត និងគំនិត អស់ពីពោះ)**

- **문장분석** : 위 문장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음을 본다.
- 한국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와 같은 표현이 크마에도 있는 데 ‘**다오이오빠쩨능오꿈넨(ធាយ អស់ពីចិត្ត និងគំនិត)**’이 그것이다.
- **한국어 문법과 크마에 문법** : 위의 표현이 문장에서 부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위의 예처럼 숙어과 같은 내용들을 익히두면 작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보파는 죽을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카를 사랑하였다.

보파 반쓸로란 소카 **다오이 오빠쩨 능 오꿈넨 r르홀델 텡아이슬랍**

បូជាបានស្រឡាញ់សុខាដោយអស់ពីចិត្ត និងគំនិតរហូតដល់ថ្ងៃស្លាប់

정성 : **ស្មោះស្រ្តី** 스모스마

오빠뿌어 : 정성...구어체에서 주로 사용

크눔 반 쓰롤란 **코안 오빠뿌어h**

- ‘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끄는 부사접속사가 크마에에 있는 데 ‘**r르홀델(រហូតដល់)**’이라는 접속사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할 때까지’에서 ‘~+’할 때까지’의 순서로 표현된다
- ‘죽다’라는 동사의 크마에는 ‘**쓸랍(ស្លាប់)**’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르혼덜(រៀន)**’+~’의 순서로 표현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는 순서가 ‘**르혼덜(រៀន)**’의 순서가 된 것이다.

- **한국어문법과 크마에 문법** : ‘**르혼덜(រៀន)**’과 ‘**다오이오빠(ដាវ)**’은 둘 다 부사구이기 때문에 순서에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B. 나는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둘 다를 좋아한다.

크놈 졸쩜 떼앙 까씩싸 능 까레잉 혹은 크놈 졸쩜 까씩싸평 능 까레잉평 떼앙빠

ខ្ញុំចូលចិត្តទាំងការសិក្សា និងការលេង 혹은 ខ្ញុំចូលចិត្ត ការសិក្សាផង និងការលេងផង ទាំងពីរ

- **문장분석** :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이다. 이 문장의 동사는 ‘좋아하다’의 현재형 ‘좋아한다’이다.

- **문장분석** : ‘좋아한다’ 동사 앞에 목적어가 있다.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둘 다를’이다.

- **문장분석** :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있으므로 이 문장은 3형식의 문장인 것을 알 수 있다.

- ‘공부하다’는 크마어로 **리언/씩싸(រៀន/សិក្សា)**이다. 놀다는 크마어로 **레잉(លេង)**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동사를 명사화할 수 있는 데 위의 문장에서처럼 동사 기본형에 . ‘~**는 것**’을 붙인다. 영어는 이러한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으로 (동)명사 혹은 TO-부정사가 있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이 책의 동사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으로 동사 앞에 ‘**까(ka)**’를 붙인다. 하지만 대부분 ‘**까(ka)**’를 생략하고 바로 동사 뒤에 동사가 뒤따르게 한다. 하지만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그 동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화된 동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 설명 -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자.

~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이유는 동사이면서 문장에서 서술어가 아니라 (대)명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어와 영어는 동사가 명사화되어 문장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문법 사항들이 있다. 한국어는 동사 기본형 뒤에 ‘~**는 것**’을 붙여서 표현하고 영어는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 TO부정사의 형태를 만들거나 뒤에 ‘ING’를 붙여 (동)명사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 예를 들어 분명히 이해해 보자.

(한국어) 나는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둘 다를 좋아한다.

- 동사 좋아하다의 목적어로 동사가 오면 동사를 명사화시켜주어야 한다. 이 때 동사 기본형에 ‘~**는 것**’이 붙는다.

(영어) I like to study and to play / I like both studying and playing.

- 동사 like의 목적어로 동사가 오면 동사를 역시 명사화시켜주어야 한다. 이 때 동사원형에 'to'를 앞에 붙여주거나 'ing'를 뒤에 붙여준다.

(크마에) 크눔 졸쩨(까)리언 능(까)레이 **ខ្ញុំចូលចិត្ត(ការ)រៀន និង(ការ)លេង**
 크눔 졸쩨 까씩싸평 능 까레이평 **때앙빠 ខ្ញុំចូលចិត្ត ការសិក្សាផង និងការលេងផង ទាំងពីរ**

- 동사 **졸쩨**의 목적어로 동사가 오더라도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문법내용이 없다. 그냥 동사를 이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동사가 명사화되어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목적어로 쓰이는 동사 앞에 '**까(ការ)**'를 붙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 크마에에서 '둘 모두'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A평(**ផង**) B평(**ផង**)'의 형태로 쓰일 수 있고, '**리언(A) 능 레이(B) 때앙빠(រៀននិងលេងទាំងពីរ)**' 형태로 쓰일 수 있다.

C.수업이 끝난 후에 그는 선생님이 나를 용서해주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본토압(끄라오이)빠 쩌빠리언 꼬안반옹뷔때앙떡프넥아오이꾸루언또아오이크

បន្ទាប់(ក្រោយ)ពីចេញពីរៀន គាត់បានអង្វរទាំងទឹកភ្នែក ឲ្យគ្រូអត់ទោសឲ្យខ្ញុំ។

- **문장분석** : 혼합문의 문장이다.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는 데 주절 안에 또 다른 종속절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문장이다. 이와 같이 중문 혹은 복문 혹은 혼합문처럼 문장이 여러 개 일 경우에는 문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도 문장형식을 파악하는 일 만큼 중요하다.
 주절의 동사는 애원했다이고 애원했다는 목적어는 하나의 단어가 구가 아니라 절이다. 이 때의 절은 애원하라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주절의 목적어가 절 즉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주절의 문장은 주어+목적어+동사의 형태를 취함으로 3형식의 문장이다.

a. 주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꼬안 반옹뷔 **때앙떡프넥** **គាត់បានអង្វរទាំងទឹកភ្នែក**

- **문장분석** : 이 문장은 미완성의 문장이다.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장의 완성된 문장을 보면 애원하다 동사의 목적어는 '선생님이~~를'의 명사절을 알 수 있다.

- 애원하다는 크마에로 '**옹뷔(អង្វរ)**'이다.

- **한국어 문법과 크마에 문법** : 애원하다는 동사는 타동사이고 크마에 '**옹뷔(អង្វរ)**'도 타동사이다. 둘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라는 표현은 크마에로 '**때앙떡프넥(ទាំងទឹកភ្នែក)**'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이 그를 용서해주기를 애원했다.

꼬안 반옹뷔 **때앙떡프넥** **아오이 꾸루 온또 아오이 크눔**

គាត់បានអង្វរទាំងទឹកភ្នែក គ្រូឲ្យអត់ទោសឲ្យខ្ញុំ

ខ្ញុំបានអង្វរទាំងទឹកភ្នែកហើយនិយាយថា សុំលោកគ្រូអត់ទោសឲ្យគាត់

- b. 종속절을 살펴보자.

បន្ទាប់ពី(ក្រោយពី)ចេញពីរៀន **후**은 រៀនចប់

- c.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면 문장이 완성된다.

បន្ទាប់(ក្រោយ)ពីចេញពីរៀន គាត់បានអង្វរទាំងទឹកភ្នែក គ្រូឲ្យអត់ទោសឲ្យខ្ញុំ។

위의 두 문장 모두 조사 ‘~에게(떠으 ឥ)’’, ‘~를’쓰인 것으로 보아 4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소폴은 목사님에게 꼭을 전해 주었다.

소폴 반아오이 프까 떠으 록꾸루공위얼 សុផបានឲ្យផ្ដាទៅលោកគ្រូគង្វាល

- 한국어는 ‘전해 주다’ 혹은 ‘주다’라는 동사가 표현하는 바가 각각 다르지만 크마에는 동사 ‘아오이 (ឲ្យ, អោយ)’가 이 두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동사와 크마에 동사가 어떻게 대치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 **설명** - 동사의 대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비가 오다와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이것을 크마어로 직역해서 비가 내리다 ‘틀레악플리영(ធ្លាក់ធ្លៀង) (내리다)’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비가 오다 ‘플리영목(ភ្លៀងមក)’의 표현은 가능하지 않다.
- ‘목사’는 크마어로 ‘꾸루공위얼(គ្រូគង្វាល)’, ‘꽃’은 ‘프까(ផ្កា)’이다. 옷은 ‘카오아으(ខោអាវ)’, 한국어 사모님은 어떤 분의 부인의 존칭어인데 크마에서는 평상어 ‘아내’라는 의미는 ‘쁘로쁜(ប្រពន្ធ)’ 존칭어 사모 혹은 부인이라는 의미는 ‘페리에여(ភរិយា)’이다

@ 소피는 사모님에게 옷을 사다 주었다.

소피 반뎀 카오아으아오이 페아리에여r르버록꾸루공위얼

សុភីបានទិញខោអាវឲ្យភរិយារបស់គ្រូគង្វាល

- **한국어 문법** : ‘사다 주었다’는 ‘사서 가져다 주었다’라는 의미다. 한국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과 동사원형의 형태로 두 동사를 나란히 쓸 수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서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도 동사 두 개를 연속으로 나열해서 표현할 수 있다. ‘뎀 아오이(ទិញឲ្យ)’처럼 말이다.

- 옷은 ‘카오아으(ខោអាវ)’, 한국어 사모님은 어떤 분의 부인의 존칭어인데 크마에서는 평상어 ‘아내’라는 의미는 ‘쁘로쁜(ប្រពន្ធ)’ 존칭어 사모 혹은 부인이라는 의미는 ‘페리에여(ភរិយា)’이다.

쁘다이 - 스와마이 ផ្ដី ស្វាមី

@ ~~~~그리고~~~

~~~~ 하으이능(ហើយនិង)~~~~하으이, 능(ហើយ,និង)

- **문장분석** :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은 ‘그리고’라는 대등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접속사의 이름을 굳이 외우고 기억할 필요는 없다.

- 한국어 ‘그리고’에 해당하는 정확한 접속사가 크마에에 있는 데 ‘하으이능(ហើយនិង)’이다.

C. 그녀가 그 당시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면 나는 그녀를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혹은 소개를 시켜드렸을 것이다).

꺄늑바으(바으) 꺄알뺏찌어 쓰롤란 크눔덴 언짱 뺏로하엘찌어 크눔 노암 꺄알 떠으 쥬음 아욱뺏 머다이 크눔 하으이

**កាលនោះបើគាត់ពិតជាស្រឡាញ់ខ្ញុំមែន អញ្ជឹងប្រហែលជាខ្ញុំនាំគាត់ទៅជួបជាមួយឪពុកម្តាយខ្ញុំហើយ**

- 형식에 대한 이해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장이 하나의 문장인지 두 개이 문장인지, 두 개의 문장이라면 대등 접속사로 이어진 문장인지, 아니면 종속 접속사로 이어진 문장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문장분석** : 한국어는 종속절의 동사에 ‘~면’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그 종속절은 부사절이 되고 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 **문장분석** : 주절의 동사는 ‘소개하다’의 존칭어로 ‘소개시키다’ 혹은 ‘소개시켜드리다’가 쓰였다.

- **문장분석** : ‘~에게’라는 조사와 ‘~를’이 있음으로 주절은 4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a. 주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나는 그녀를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 시켜드렸을텐데

A. 언짱뺏로하엘찌어 크눔 노암 꺄알 떠으 쥬음찌어므이 아욱뺏머다이크눔 하으이

**អញ្ជឹងប្រហែលជាខ្ញុំនាំគាត់ទៅជួបជាមួយឪពុកម្តាយខ្ញុំហើយ**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간목과 직목의 위치가 자유롭다. 즉 직목이 먼저오고 간목이 먼저 와도 상관없이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반드시 간목+직목의 우선을 지켜야 하지만, 직목+간목의 어순으로 바뀔 때는 간목 앞에 각각 전치사 to, of, for 와 떠으, 달을 붙여 부사구로 만들어 준다. 이 때는 영어와 크마에에서 4형식의 문장은 3형식의 문장으로 바뀐다

● **설명** - 영어와 크마에의 예를 들어 간목+직목의 어순이 직목과 간목의 어순으로 바뀌면 3형식의 문장이 됨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어) 보파는 나에게 인형을 선물로 주었다(4형식).

보파는 인형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4형식).

(영어) Bofa gave me a doll as present(4형식).

Bofa gave a doll to me as present(3형식).

~ 직목이 앞에 위치함으로 인해 간목인 me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 부사구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4형식의 문장은 3형식이 된다.

(크마에) 보파 반아오이 도끄따 목크눔(4형식). **បូជាបានឲ្យតុក្កាមកខ្ញុំ**

보파 아오이 도끄따 털 크눔 찌어까도우(3형식). **បូជាឲ្យតុក្កាដល់ខ្ញុំជាកាជូ**

~ 직목인 **도끄따(դոցտա)**가 앞에 위치함으로 인해 간목인 **크눔(կնոմ)** 앞에 전치사 ‘**달**’을 붙여 부사구로 만든다. 따라서 4형식의 문장은 3형식이 된다.

- 소개하다 혹은 소개시키다 동사의 크마에는 ‘**나에노암(ណែនាំ)**’이다. 크마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경어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다’ 역시 ‘소개하다’의 의미인 ‘**나에노암(ណែនាំ)**’이 된다.

- 나의 부모님의 크마에 표현은 ‘**아우팩머다이르보크눔(ឪពុកម្តាយរបស់ខ្ញុំ)**’이다.

@ 나는 그녀를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렸을 텐데

**크눔즈바흐 찌어노암 꼬안 떠으 쥘 찌어므이 아우팩머다이르보크눔찌어멘칸**

**ខ្ញុំច្បាស់ជានាំគាត់ទៅជួបជាមួយម្តាយឪពុករបស់ខ្ញុំជាមិនខាន**

- 틀림없이를 뜻하는 크마에 부사는 아찌아레악 혹은 지어다엘캇 혹은 먼다엘칸이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종속절이 가정의 부사절이면 주절의 동사에 ‘~을(를)텐데’의 조사들이 붙는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주절의 동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 b. 종속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 그녀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쁘로썌)바으 꼬안 쓰롤란 크눔 ㅍ루시스비캅캅스루라ញខ្ញុំ**

- **문장분석** : 종속절은 가정의 부사절임을 알 수 있다.

- 가정의 부사절을 이끄는 크마에 접속사에는 **바으(បើ)** 혹은 **쁘로썌바으(ㅍ루시스비)**가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조사 ‘~면’이 동사의 끝에 붙는다

- **크마에 문법** : 바으 혹은 쁘로썌바으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

- **한국어 문법** : 부사의 가정절에 쓰이는 동사는 맨 끝에 ‘~면’이 붙은 형태가 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가정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만 붙을 뿐이다.

@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쁘로썌바으 꼬안 쓸로란 크눔 ㅍ멘 ㅍ루시스비캅캅스루라ញខ្ញុំពិតមែន**

- ‘진심으로’로 ‘**ㅍ멘(ពិតមែន)**’이다.

- 부사이므로 위치에 상관을 받지 않는다.

@ 그녀가 나를 그 당시에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깎누흐 쁘로썌바으 꼬안 쓰롤란 크눔 ㅍ멘 កាលនោះ ㅍ루시스비캅캅스루라ញខ្ញុំពិតមែន**

- 그 당시에는 그 때에 라는 표현과 동일하다.
- 한국어는 ‘그 때’ 혹은 ‘그 때에’라는 표현을 같이 쓴다.
- ‘그 때’는 크마에어로 ‘끄리어누’ 혹은 ‘베일베일리어누’이다.
- 한국어 문법과 크마에 문법 : 크마에도 한국어처럼 ‘끄리어누’ 혹은 ‘베일베일리어누’가 부사임으로 단독으로 쓰던, ‘끄리어누와 베일베일리어누’ 명사로 취급해서 앞에 ‘너으’를 붙여 부사화시키던 상관없다.

**c.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면 문장이 완성된다.**

**주절** - 나는 그녀를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렸을 텐데  
 크눔쯔바ㅎ 찌어노암 꼬안 떠으쭈 아옥뵉머다이르버크눔찌어민칸  
**종속절** - 까누ㅎ 뿌로썬바으 고탃 쓸로란 크눔 뻔멘  
**주절+종속절** - 까누바으(바으)고탓뻔찌어 쓸로란 크눔멘 언쭈브러하엘찌어 크눔 노암 고탃 떠으  
 주읍 우뵉머다이크눔 하오이  
 កាលនោះបើគាត់ពិតជាស្រឡាញ់ខ្ញុំមែន អញ្ជឹងប្រហែលជាខ្ញុំនាំគាត់ទៅជួបឪពុកម្តាយខ្ញុំហើយ

**5) 5형식의 문장을 작문해 보자.**

- 한국어에서 5형식의 문장은 영어나 크마에처럼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 아래에 다양한 예들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 5형식의 문장은 영어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 그 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룩싸쓰뜨라짜누 반아오이 썬 뿌러꼐 아이끄싸 아오이 꼬안

លោកសាស្ត្រចារ្យនោះបានអោយសិស្សប្រគល់ឯកសារឲ្យគាត់

- **문장분석** : 영어의 5형식 문장은 주어+동사+직목+보어의 순이다. 위의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5형식의 문장에서 한국어는 직목이 뒤에서도 보겠지만 목적격조사만 붙는 것이 아니라 ‘~로 하여금’, ‘~가’, ‘~를’등 다양한 조사들이 따라온다. 위 문장에서 직목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이다. 따라서 5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That professor made students hand into report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5형식의 문장은 주어+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의 순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5형식의 문장은 주어+동사(아오이)+직목+보어의 순이다.

- 교수는 크마에로 **싸쓰뜨라짜**(ស្រ្តីច្បាច់), 제출하다는 동사는 크마에로 **아오이**(ឲ្យ)이다. 자료는 크마에로 **아이끄짜**(ឯកសារ)다.

- **크마에 문법** : 첫 번째 '**아오이**(ឲ្យ)'는 5형식 문장을 이끌어 주는 '~하게 하는'의 의미인 **아오이**(ឲ្យ)이고, 두 번째 '**아오이**'는 '주다'라는 동사로서의 '**아오이**'이다.

## B. 그 책은 그를 평안하게 해 주었다.

**씨어퍼우누 반트뵤아오이 꼬안 미언 찢썅잔** សៀវភៅនោះបានធ្វើឲ្យគាត់មានចិត្តសុខសាន្ត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한국어 문장의 직목은 앞에서 본 문장과 달리 '~로 하여금'의 조사가 붙은 것이라 목적격조사 '~를' 붙어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5형식 문장의 직목에 붙는 조사가 일정하지 않다.

- **크마에 문법** : '목적보어'로 **썅잔**(សុខសាន្ត)만 써도 무방하지만 크마에 언어습관을 존중해서 **미언**(មាន)을 붙였다.

## C. 그는 내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꼬안 아티탄 쏘마오이 크눔 미언 썅페아명꼴** គាត់អធិស្ឋានសុំឲ្យខ្ញុំមានសុភមង្គល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한국어 문장은 앞 문장과 달리 '~를'의 조사가 붙은 것이 아니라 '~가'가 붙어 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영어와 크마에 문법에 따르면 목적어이다. 이 책 맨 앞에서 5형식 문장을 설명할 때 5형식의 문장은 두 문장을 단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한국어 문장 제 5형식은 제 5형식이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것임을 위의 문장과 같은 것을 통해 드러내 보여준다. 위 문장이 한국어 문장 제 5형식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면, 이 문장을 크마에 제 5형식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살핀다. 바뀌 쓸 수 있다면, '**아오이**(ឲ្យ, អោយ)'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본다.

- 위와 같은 문장은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제5형식의 문장은 '**아오이**(ឲ្យ, អោយ)'를 어떻게 써서 표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은 영어의 제5형식 문장의 대부분 동사가 사역동사인 이유와 같다.

Book  
Written by  
All rights reserved.

크마에 문법을 이해시켜 작문과 독해를 자유롭게!

# 크메르 작문

Khmer writing

김동구

김동구

2022년 9월 초판 발행

지은이 | 김동구

편집 | 정영신

주소 | in Chip Mong-The Park Land Sen Sok, St. P1015, Bayab village,  
Sangkat Phnom Penh Thmei, Khan Sen Sok, Phnom Penh

전화 | +855-

이메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합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